

지키다 — 일상



오늘의 일상을 지켜내고
미래를 더 좋은 세상으로

꿈꾸다 그 이상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25 JUNE Vol. 123

SPECIAL THEME
작은 공간의 큰 메세나

COVER ARTIST



윤향로 〈심쿠가마 1〉
2024, Acrylic, liquid chrome™ ink, Epson UltraChrome inkjet on
poly-cotton canvas, 141.5×106.5cm

2024년 개인전 《Mirae》에서 발표한 작품의 연작 중 하나로, 인
쇄와 회화의 실험을 함께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키나와의 두 동
굴, 심쿠가마심クガマ와 치비치리가마チビチリガマ를 다녀온 윤향
로 작가는 그곳에서 발견한 문장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 무엇
이었을까?”에 천착하며 회화적 실험을 지속했다.

작가 윤향로

윤향로 작가는 동시대 이미지를 바탕으로 추상회화의 가능성
을 모색한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보는 다양한 디
바이스, 이를 회화로 번역하는 과정을 그리기의 방법과 회화
의 다양한 재료로 표현한다. 2012년부터 9회의 개인전을 개
최했으며, 2025년 12월 실린더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
다. 광주비엔날레2018, 제주비엔날레2022 등에 참여했고, 2008
년부터 매해 다수의 그룹전 및 개인전, 공공미술, 기업 등과의
협업을 진행하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
관 과천, 캠퍼운데이션,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미술관, 인천아
트플랫폼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수원시립미술관, 스페인 그라나다의
Medianoche0 Foundation, 국립현대미술관 정부 미술은행,
아라리오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반연간지 《mécénat》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윤향로 작가는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을 통해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mécénat

2025 JUNE VOL. 123

SPECIAL THEME

작은 공간의 큰 메세나

리포트①	06.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리포트②	12.	지역 문화예술이 숨 쉬는 터전
리포트③	18.	모두의 일상 속에 열린 공간의 메세나
테마 피플	24.	작은 공간을 크게 빛내는 예술가들
칼럼	26.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의 가치 확산하기

SPOTLIGHT

메세나 스코프	32.	창작자의 방,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작업
기업은 지금	36.	태광그룹
예술은 지금	42.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이슈 브리핑	46.	경험소비는 트렌드, 문화예술소비는 품격
해외 메세나	50.	이탈리아 저축은행재단의 메세나

SIDE BY SIDE

	55.	파트너십
	56.	메세나 현장
	58.	협회 뉴스
	62.	회원사 뉴스
	67.	회원사 소개



QR 코드로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6월 11일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발행인	윤영달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오니트(주) www.on-it.k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가격	5,000원

홈페이지	www.mecena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eamecenat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 가까이, 다채롭게 존재하는 문화예술을 위해

작은 공간의
큰 메세나

문화예술공간의 가치는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멀리 있어 자주 찾기 힘든 곳보다
사는 곳 가까이 있어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은 공간이다.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은 아티스트와 팬을 집단으로 보기보다
각자의 지향점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개성 있는 기획을 시도할 수 있다.
한 명의 예술가와 한 명의 관객이 만나 최고의 예술 경험을 나누며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작은 공간의 역할이며,
이곳에서 메세나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신진 예술가를 위한 무대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 인프라 분야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영역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 중에는 큰 규모와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진 곳들과 별개의 위상을 가진 소규모 시설도 다수 존재한다. 비주류 장르나 신진 아티스트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 공간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한다.

글 편집부
사진 제공 삼성문화재단, CJ문화재단, 신한은행, 안국문화재단, 코스모스악기, 씨앤엠문화재단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곳

연주자의 호흡이 귓가에 와 닿고 현의 미세한 떨림이 보인다. 눈 앞에서 펼쳐지는 음악의 향연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연주자도 그런 청중의 반응을 생생하게 확인한다. 연주가 춤 출수록 객석은 더 고요하다. 마지막 음이 내려앉을 때 무대와 객석의 에너지가 동시에 폭발한다. 작은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박수소리가 또 다른 감동으로 연주자와 청중을 휘감는다. 삼성문화재단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리움미술관 인근에 개관한 '사운즈'는 짧은 기간에 음악 애호가들이 주목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50석 규모의 객석과 아담한 무대는 단차가 없고 1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연주자와 청중의 친밀한 소통을 유도한다. 실내악 같은 작은 연주일수록 음악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청중의 호응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운즈'



공연장 내부는 원래 2, 3층으로 나뉘었던 공간을 한 층으로 활용해 공간감을 높였다. 나무 소재를 사방에 활용해 부드럽고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공연장 벽면을 여닫는 구조로 잔향의 정도를 조절한다. 공연장 전면에 설치된 날개 형상의 구조물과 조명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구조물의 경우 음향 반사판의 기능도 갖고 있다.

삼성문화재단 ‘사운즈S’의 기획공연 시리즈

사운즈S는 소규모 공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몰입감 높은 공연, 대중과 예술가의 진지하고 친밀한 교류를 표방하며 매월 공연, 강연, 마스터클래스 등 알찬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1회의 기획공연과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올해는 공간의 특성을 극대화해 ‘감상의 확장’을 제공하는 13회의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일찌감치

① CJ아지트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는 로이킴

② CJ아지트에서 열린 튜업 뮤지션 터치드의 공연



1



2

라인업을 정했다. 클래식,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기획공연 시리즈는 도심권의 문화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다. ‘더 마스터The Master’는 클래식, 국악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연주자들이 축적해 온 음악세계를 조명하는 리사이틀 시리즈로, 아티스트 강연과 토크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한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신예 음악가의 놀라운 재능과 열정을 조명하는 시리즈다. ‘프리즘Prism’ 시리즈는 재즈, 목관, 클래식 기타 등 다채로운 라인업을 소개하고, ‘익스클루시브Exclusive’ 프로그램은 사운즈S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하고 심도 있는 예술 수업을 선보인다.

창작과 소통의 A부터 Z까지, ‘CJ아지트’에서

2009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개관한 이래 6만 명 이상의 관객객이 찾은 ‘CJ아지트’는 창작자의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성을 지향하는 플랫폼으로 사랑받아왔다. 아지트AZIT이라는 명칭에는 창작 활동의 A부터 Z까지 지원하겠다는 CJ문화재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예술의 경계를 넘어 창작과 소통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반영한다. CJ아지트의 대표 시설은 스탠딩 기준으로 약 250명을 수용하는 블랙박스 시어터형 공연장이다. 공간 활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구조여서 공연자의 의도를 충실히 담아내며 다양한 장르의 협업 무대를 꾸미기에도 최적의 환경이다. CJ문화재단의 창작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은 이 공연장에서 자기만의 특별한 무대를 가질 수 있다. 인디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 ‘튜업’ 선정자, CJ음악장학사업 버클리음대 부문 장학생,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수상자 등에게 공연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조명, 음향 등 공연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도 포함되며 공연 실황을 유튜브 음악채널 ‘아지트 라이브’에 공개할 수 있도록 촬영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CJ아지트는 2017년 4월, 녹음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커뮤니티 라운지를 신설해 창작 기능을 강화하며 재개관했다. 영국 애비로드 스튜디오의 시설을 재현한 스튜디오는 모든 인디 뮤지션이 작업하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손꼽힌다. 튜업 뮤지션에게는 스튜디오 사용, 음반 제작,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까지 종합 지원이 제공된다. 2010년부터 튜업, CJ음악장학사업, 유재하음악경연대회 출신까지 수혜자는 총 544명에 달한다.

신진 예술가의 꿈의 무대, ‘신한아트홀’

‘신한아트홀’은 신한은행이 지난 2008년 서울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콘서트홀과 갤러리를 갖춘 이곳은 대관 프로그램 없이 운영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며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세나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80석의 콘서트홀은 섬세한 음향과 조명, 고해상도 영상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아티스트와 관객 모두에게 몰입도 높은 환경을 제공한다.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는 신한음악상 수상자들의 무대로 잘 알려진 이곳도 개관 초기에는 운영에 고민이 많았다. 임직원과 고객을 위한 사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신한아트홀은 공간을 활성화해 폭넓은 사회공헌을 실천하려는 논의를 지속했고 2019년에 신한 라이브클래식을 신설하면서 미래세대 예술인재 양성의 터전으로 자리잡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신한라이브클래식은 중등학교 음악 전공 학생들의 독주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까지 370여 회의 공연이 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다. 대관비 포함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해 학생들이 온전히 연주에

③ 신한갤러리의 ‘2024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전시 《상용》

④ ‘신한아트홀’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6회 신한음악상 시상식 축하 연주



3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갤러리의 대표 프로그램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2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신진 작가의 등용문이다. 그 출발은 광화문 신한갤러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두 곳의 신한갤러리가 현 장소로 통합된 지금까지 누적 295명의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168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신한갤러리는 이 외에도 문화예술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장애 예술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포용성과 다양성이 살아 있는 예술 생태계 확대에 기여하는 중이다.



4



5



6

5
2024 AG신진작가 공모전
수상작가 박아람·임현경과
함께한 신년 테마 기획전
《도시와 숲의 사색》

6
2023 AG신진작가 공모전
수상작가 전시
《아구아 비바-아나하》

오직 신진 작가를 위한 공간, ‘AG갤러리’

‘AG갤러리’는 미술계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안국문화재단 메세나 사업을 대표하는 창구로서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선정작가와 안국미술상 수상작가 전시, 미디어아트 쇼케이스 전시 등 기획전시 위주로 운영된다.

갤러리의 역할과 미술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관한 치열한 고민은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의 운영 방식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 공모전은 신진 작가의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업갤러리의 전속작가로서 전시 비용을 지원받는 작가를 제외하고 자비로 활동하는 모든 작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인물을 보는 인터뷰 없이 이름, 학력, 경력 등을 모두 가린 채 20점 이상의 작품만 보는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공모전 수상작가 전시를 포함해 거의 모든 전시를 신진 작가 위주로 기획할 만큼 미술계에 실질적 지원을 보내겠다는 AG갤러

리의 의지는 진심이다. 신진 작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 선정작가를 회원제로 관리하며 멤버십 전시도 이어가고 있다.

2008년 안국약품의 서울 대림동 사옥에 110㎡ 규모로 개관한 AG갤러리는 지난해 이전한 경기도 과천 신사옥에 두 배 가까이 넓은 공간을 마련했다. 제1·2전시실, 원도우전시실, 미디어아트전용 전시실 등 공간 구성이 다채로워졌고, 답답한 화이트 박스를 탈피해 자연채광과 특수조명을 활용하면서 개방성이 뛰어난 현대적 전시장의 면모를 갖추었다. 직원을 위한 사내 문화시설로 출발해 지역사회의 소중한 문화 인프라이자 새로운 미술의 산실로서 갤러리의 위상을 확립해가는 중이다.

서초동 악기거리의 명소 ‘스타인웨이홀’

코스모스악기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동 악기거리에 ‘스타인웨이 갤러리 서울’을 개관했다. 악기 전시장, 연습 공간과 더불어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를 갖춘 70여 석 규모의 연주 공간도 마련했다. 피아노,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와 교육자를 초청해 콘서트 및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개관 후 짧은 기간에 이곳의 존재를 연주자와 클래식 팬들에게 알린 프로그램은 두 개의 콩쿠르다. 2011년에 처음 개최된 한국스타인웨이 콩쿠르는 17세 미만의 영 아티스트를 발굴한다. 스타인웨이홀에서 경연을 치르며 우승자에게는 스타인웨이 콩쿠르 아시아 결선 진출을 지원한다. 비전공자 콩쿠르는 2022년에 시작되어 제4회 대회를 앞두고 있다. 많은 청중 앞에서 연주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려는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입상자에게는 스타인웨이홀에서의 단독 연주회 개최와 심사위원 마스터클래스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대주엔터프라이즈의 꿈과 ‘대주아트 엔터뮤직2호점’

지난해 8월에는 대주엔터프라이즈를 모기업으로 하는 씨앤엠 문화재단이 서초동 악기거리에 ‘대주아트 엔터뮤직2호점’을 개관했다. 김기수 대주엔터프라이즈 대표는 메세나의 일환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과 청년 음악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후원했다. 도전Challenge과 기적Miracle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담아 재단 이름도 두 단어의 머릿글자를 딴 C&M으로 정했다.



7



8

7
70여 석의 객석을 갖춘
‘스타인웨이홀’

8
제6회 한국스타인웨이
콩쿠르 대상 강동희의 연주

9
‘대주아트 엔터뮤직2호점’의
‘클래식 다방’ 기획전연



9

대주아트 엔터뮤직2호점은 그랜드 피아노를 비치한 공연장, 연습실, 모임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기획으로 청중을 만나고 있다. 최근에는 서초문화재단의 공연 프로그램인 ‘클래식 다방’에 참여해 기획공연을 진행했다. 바이올린 성유진, 피아노 김우주 등 예고 재학생들이 연주자로 성장하는 과정,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작곡과 피아노 연주 활동을 이어가는 유지민의 열정이 감동을 전한 무대였다. 



문화예술 도시를 만드는 메세나 공간

지역 문화예술이 숨 쉬는 터전

지역에는 그 지역만이 가진 자연, 역사, 사람들의 삶이 있다. 지역 곳곳에 촘촘히 자리잡은 문화예술공간들은 지역 고유의 자산을 문화예술로 꽃피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기업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일과 더불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문화도시 만들기에도 진심이기 때문에 기업 특유의 섬세한 접근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글 편집부 | 사진 제공 광주은행, DRB동일, BNK부산은행, 남명아트홀, 하나금융티아이, 아이티공간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개최한
〈2024 제8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대한민국 제2의 수도에 있어야 할 것

대한민국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이 문화면에서도 그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고 하면 긍정적인 답을 찾기는 어렵다. 도시를 대표하는 공연장과 문화행사는 있어도 지역민의 일상 가까이 함께할 공간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심과 조금만 떨어지면 문화 인프라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 부산의 향토기업 DRB동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캠퍼스디 부산’을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디 부산’이 위치한 부산 금정구 금사동은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으로, 기업의 문화공헌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인했다. ‘캠퍼스디 부산’은 1995년에 동일고무벨트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구성원과 지역민의 복리후생, 교육, 문화 향유를 위한 복지관으로 건립된 곳이다. 오직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순수 문화예술 활동에는 100퍼센트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캠퍼스디 부산’ 야외정원에서 진행한 공연

DRB동일의 사회공헌플랫폼 ‘캠퍼스디 부산’

2017년에는 창업주인 김도근 회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복지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문화·예술·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모이는 문화놀이터이자 청년창업인과 문화단체의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공헌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 200석 규모의 공연장인 고촌홀과 야외 정원에서는 ‘캠퍼스디 부산’의 기획공연을 필두로, 지역 문화재단 및 예술단체들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 외에도 소규모 강연과 세미나를 위한 공간, 어떤 활동이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스타트업이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위한 입주 사무실, 문화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동아리들에 제공되는 지하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옛 복지관 시설이 주로 금사동 주민의 사용 공간이었다면, 크고 작은 활동이 쌓이고 많은 문화예술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금의 ‘캠퍼스디 부산’은 더 멀리서 찾아오고 더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문화예술교류의 장으로 성장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축제가 열리고 경기·강원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진다.

‘캠퍼스디 부산’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도 알차다. ‘푸슈쿵! 멜로디’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으로 ‘캠퍼스디 부산’ 입주단체인 청춘나비, 부산문화재단과 협력해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아이들과 동요를 창작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며 발표회를 갖는다. ‘재즈로 그리는 인문학’은 음악과 인문학 수업을 엮은 기획 시리즈다. 남미, 유럽 등 세계 각지의 음악 이야기, 문화 체험, 공연으로 꾸미며 올해는 아프리카 음악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포동 ‘모통이극장’과 ‘BNK부산은행 갤러리’

단관 극장이 사라지고 멀티플렉스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현상은 문화예술의 상업화와 편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 부산에서도 2018년에 마지막 단관 극장이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단관 극장의 부활로 화제가 된 곳이 있다. BNK부산은행이 중구 신창동의 옛 본점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아트시네마다. 광복로 모퉁이에 자리잡아 ‘모통이극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단관 극장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 왔다.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고, 관객이 직접 뽑은 영화를 상영하는 《관객영화제》 같은 행사를 개최하며 꾸준히 관객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건물 2층에 위치한 ‘BNK부산은행 갤러리’는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개관한 시설이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금까지 340회 이상 무료 대관전시를 진행했다. 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은 규모가 작을수록 해당 공간을 운영할 전담 조직이 없고 그로 인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BNK부산은행은 전담 큐레이터가 상주하면서 지속가능한 갤러리 만들기를 모색하고 있다. 부·울·경의 역사를 담은 기획 사진전, 청년작가 미술대전 등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단체·학교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대관전시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한다.

매주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는 ‘남명아트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지구 대로변에 위치한 남명산업개발 사옥에는 소형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기업이 곧 문화’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년 가까이 지역 예술인 후원에 앞장선 이병열 회장이 공간을 설계할

- ①
부산 중구 신창동에 위치한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②
‘BNK부산은행 갤러리’의
포슬린페인팅아트 작품전
《봄이 오는 소리》
- ③
경상남도 김해시의
남명산업개발 사옥에
조성된 ‘남명아트홀’





때부터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은 곳이다.

142석을 갖춘 아트홀은 이 회장이 전국 공연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모두 반영해 공연자와 관람자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출입문 위치, 공연자 대기실 구조, 무대 배치, 객석 높이 등을 세심하게 챙겼고 소규모 전시·공연장에서는 보기 드문 분장실과 샤워실까지 갖췄다. 공연설비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고급 기자재로 구비했다. 무대에는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보통의 공연장과 달리 고화질 LED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조명과 천장의 붐마이크로 공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화질 카메라가 있어 공연 실황 녹화도 가능하다. '남명아트홀'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시간 스트리밍도 지원하고 있다.

지금 남명아트홀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 인프라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질과 양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우리동네 소극장에서 매주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를 표방하는 《2025 위클리 클래식 페스티벌》이다. 이 행사는 2022년 경기도 오산에서 출발해 지난해 전국 8개 공연장으로 확대되었고,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청주, 논산, 군산, 김해, 부산, 제주 등 15개 공연장에서 총 150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남명아트홀은 3월 12일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화와 피아니스트 김소원의 무대를 시작으로 7월까지 17회의 공연을 이어간다.

광주화루의 전통을 지키는 '광주은행 아트홀'

은행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고 그곳의 문화공간은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이 된다. 광주은행은 동구 대인동 본점 1층에 '광주은행 아트홀'을 조성하고 광주의 특색을 살린 문화사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광주은행이 2016년에 시작한 '광주화루'의 수상자 전시가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광주화루'는 광주의 문인화 전통을 계승하면서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모전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화 작가가 공모 대상이며 지역과 나이 등의 제한이 없어 등단을 위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부터 기성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다. 수상자 전시인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은 한국화의 흐름과 새로운 시도를 한눈에 확인하는 자리로 그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광주은행 아트홀'은 지역사회의 문화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외 교류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작년에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가해 색다른 문화체험 이벤트를 진행했다. 파빌리온은 본 전시와 별개로 도시 곳곳에서 운영한 국가관으로, '광주은행 아트홀'은 아랍 국가 중 유일하게 참가한 카타르 파빌리온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하나금융티아이의 미디어아트 갤러리

하나금융티아이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 IT 전문기업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이전을 완료한 2017년부터 인천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예술과 기업의 상생을 추구해 왔다. 특히,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실현하는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로비에 세 개의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갤러리를 조성하고 기획 전시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미디어 분야에서 총 20명의 작가를 지원했다. 직원, 손님, 지역민에게 개방된 공간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만나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2018년부터는 사내 갤러리를 벗어나 인천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에서 협력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미디어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미디어아트를 통해 탐색하는 이민하 작가의 《수행하는 오늘》이다. 임신과 출산, 삶과 죽음 같은 개인의 서사를 가상의 제의로 풀어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로 전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할 계기를 제공한다.

울산시민과 함께 만드는 갤러리 카페 '잇츠룸'

울산의 강소기업 아이티공간이 조성한 '잇츠룸It's room'은 회사의 연구 업무에서 출발해 시민이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보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생명력을 갖게 된 공간이다. 기술 연구를 위해 사람 목소리 데이터를 수집하던 아이티공간은 인터뷰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공연, 전시, 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했다. 이 작품들을 사옥 1층의 직원 휴게실에서 공유했는데, 인터뷰에 응했던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6

아이티공간이 조성한
'잇츠룸'의 오페라 공연

7

'잇츠룸'에서 진행한
베트남 요리 대회

공간 이름도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방문자들이 건물 벽면에 부착된 회사 도메인 Itsroom을 보고 이 공간을 잇츠룸이라고 부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It's room'이 정식 명칭이 되었다.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는 갤러리를 표방한 잇츠룸은 형식과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을 지향한다. 전시 분야는 작가의 작품과 생활예술을 망라하고 공연은 소형 오페라부터 국악까지 장르를 넘나든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업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 교류 활동도 꾸준히 지원한다.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이자 일상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직원, 시민과 함께하는 중이다. 

“2024 IBK 아트 스테이션”
세 번째 전시,
최성임 작가의
《도시정원》

어디에나 자유롭게 존재하는 예술

모두의 일상 속에 열린
공간의 메세나

우리의 문화예술 경험은 대부분 전문 시설에서 일어난다. 그 경험을 위해서는 공연장이나 갤러리 같은 시설을 찾아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사옥이나 기타 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은 예술이 일부 전문가와 애호가 영역에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경계를 확장한다.

글 편집부 | 사진 제공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에스-오일, 대성문화재단, 스타벅스 코리아





1



2

여의도의 직장인들이 향하는 곳

한국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여의도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 톡아 보면 맨해튼과는 다른 점을 금방 찾게 된다. 고층 빌딩과 그 안에서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의 중심지라는 위상과 별개로 여의도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예술적 감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서울과 수도권에 문화예술공간이 편중되고, 이름 있는 시설의 대형 이벤트에 관객이 쏠리는 우리의 문화예술 지형도가 여의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①
중소기업중앙회
후문 마당에서 열린
수요음악회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갤러리 세이프'

이러한 현실에서 여의도의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중 잠시 쉼을 내어 방문할 문화예술 쉼터를 만드는 기업들의 노력은 공연이나 전시를 개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는 회관 후문의 유휴 공간을 다채로운 거리 공연의 무대로 만들어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을 초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며 알찬 전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요음악회

지난 4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후문 마당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수요음악회》 첫 공연이 열렸다. 관객을 위해 마련한 파라솔과 의자의 노랑색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상징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봄의 색이기도 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걸던 직장인들은 음악 소리에 이끌리듯 찾아와 좌석을 채웠고,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며 흥겨운 공연과 함께 한낮의 여유를 만끽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의도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무더위가 찾아오는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 40분간의 야외 공연을 진행한다. 클래식, 아카펠라, 뮤지컬,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공연 회차가 쌓이면서 입소문이 나서 점점 더 많은 관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여의도 일대에 활기를 더해가는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갤러리 세이프'

여의도 중심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의 '갤러리 세이프 Gallery SAFE'는 직원과 고객은 물론 인근 직장인들이 잠시 들러 쉼표를 찍고 가는 문화예술 쉼터 같은 곳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과거 금고가 있던 공간을 오랫동안 창고로 사용하다가 문화예술 사회 공헌을 위한 갤러리로 새롭게 단장해 2021년 9월에 개관했다.

SAFE라는 명칭은 Sustainable Art For EXIM의 머릿글자로, 금고의 안전한 보관을 의미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을 통해 ESG를 실천하겠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수출입은행 소장품 전시를 통해 은행의 각 사무공간에 걸려 있던 작품들, 순환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관람객만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신



진작가 기획전 및 공모전 수상 작가를 소개하며 예술인 지원에 동참했고,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네 명의 작가를 소개하는 기획전시 《The SAFE》 시리즈를 진행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가능성의 예술, 에이블아트를 만나다》 전시를 연속 개최해 장애인 예술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했다. 에이블아트 Ableart는 장애인인 불가능한(disable)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장애라는 차이를 새로운 예술의 원천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운동이다.

'갤러리 세이프'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유휴 공간은 더 많은 이들에게 현대미술을 소개하며 새로운 시각과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효율적인 쓰임새를 되찾는 창의적 시도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아트 스테이션'

서울 을지로는 복잡한 도심에서도 가장 역동적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이곳에 본점을 두고 있는 IBK기업은행은 로비 공간을 갤러리로 활용해 설치미술과 회화 분야의 유망한 신진 작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IBK 아트 스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3년간 총 16명의 작가와 함께한 이

IBK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더 아트 프라자 2024》

프로젝트는 선정된 작가의 신작 제작비와 개인전 개최, 작품 홍보 등을 지원해 문화예술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BK기업은행 본점 로비는 규모가 큰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다. 전시 공간의 크기는 가로 45미터, 세로 25미터에 달하며 층고는 7미터가 넘는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기둥도 전시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한다. 공간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하고 바쁜 도심을 오가는 시민 및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고민하는 것이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다. 설치 작품은 현장에서 유연성과 순발력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신진작가에게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이고,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새롭고 도전적인 전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IBK기업은행 본점은 '더 아트 프라자'의 주요 공간이기도 하다. '더 아트 프라자'는 IBK기업은행이 신진작가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개최하는 행사다. IBK기업은행 본점과 그 일대, 을지로 지하상가 공실들을 활용해 전시와 도슨트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한다. 본점 옆 선릉가든에서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하고 인근 갤러리와 연계해 협업전시도 개최해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3



4



5

을 지원하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후원하면서 《햇살나눔콘서트》를 시작했다.

2022년에는 에쓰-오일이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단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작은 음악회를 시작했다. 올해는 장애인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하트하트아트앤티컬처가 정식 설립되었다. 에쓰-오일도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와 양상블이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를 여는 등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대상문화재단의 '카페 느티' 갤러리

대상문화재단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옥에 갤러리를 마련했다. 전시 기회가 부족한 신진 작가를 위해 2개월마다 다른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고 공간 대여와 더불어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전시 공간은 직원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카페 느티'의 벽면 전체를 활용해 조성했다. 65개의 좌석을 갖춘 공간은 전시 오프닝 공연이나 아티스트 토크 등을 진행하기에도 적당하다. 대상문화재단은 직원과 인근 주민들,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취지다.

작년 7월에 진행한 카페 느티의 첫 전시는 대상문화재단 장학생 출신의 작가 4인을 소개했다. 8월에는 6인의 민화작가들이 '21세기 조선의 팝아트'라는 주제로 재기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추석을 전후해 진행한 전시에서는 '향기로 온 꽃'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선물 같은 작품을 선보였다.

③
에쓰-오일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17년째 함께하고 있는
《햇살나눔콘서트》

④
에쓰-오일 본사
로비에서 진행한
《하트-하트연주단
작은 음악회》

⑤
대상문화재단 사옥
2층에 조성된
'카페 느티' 갤러리

에쓰-오일이 선물하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은 누구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연, 전시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전문 시설 외에도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에쓰-오일은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래 서울 공덕동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무료 공연을 개최해 왔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클래식, 국악, 뮤지컬,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려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에쓰-오일은 공연 전문 시행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완성도 높은 공연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300석 규모의 대강당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외에도 인근 주민과 직장인을 위한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 지난 2009년부터 발달장애 청년들의 성장



22

23

6

⑥
스타벅스 과천DT점
2층에 개관한
'별빛미술관'

⑦
장애인 작가 공모전
수상작을 적용한
스타벅스 상품

스타벅스 코리아의 '별빛미술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신진 예술가를 소개하는 역할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주요 전략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8년 12월,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장 내 일부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별빛미술관'을 개관했다.

과천DT점 2층에 마련한 별빛미술관은 유리문으로 구분된 별도 공간에 갤러리가 조성되어 있어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좀 더 집중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왔다. 청년 장애인 작가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텀블러 그림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 작품 상시 전시를 포함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이들, 시민을 위한 미술 수업을 진행한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생각하는 매장은 단지 커피를 마시고 쉴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공간이며 문화예술은 그 경험의 중요한 테마다. 이 맥락에서 별빛미술관은 신진 작가와 고객이 만나 예술적 교감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공간이자,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로 기능한다. 



7

작은 공간을 크게 빛내는 예술가들

작은 문화예술공간은 예술가와 관객이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이 만드는 문화예술공간에서 예술가들은 현재의 관객에게 말을 걸고,
미래의 자신을 위한 메시지를 남긴다.

글 편집부 | 사진 제공 CJ문화재단, 아카이브아침, 삼성문화재단, 안국문화재단



CJ아지트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음악, 연기, 다큐, 방송까지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홍이삭에게 CJ아지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준 곳이다. 홍이삭은 홍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2013년 제24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동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CJ문화재단의 뮤지션 지원 사업인 튜업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앨범 제작 지원을 받고 KCON 등 글로벌 무대에 섰다. 홍이삭은 “CJ문화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티스트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노력하신다고 느꼈다.”며 “지속적인 활동이 중요한 아티스트에게 재단 지원은 큰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올해 발매한 5번째 미니앨범 《The Lovers Note》는 더 넓어진 음악 스펙트럼에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고민을 담고 있다. 홍이삭은 “내 안의 수동적인 성향이 옷 속에 숨은 가시처럼 나를 계속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움직임으로 벗어나보자 생각했고 긍정적인 감정을 담았다.”라고 작업 의도를 설명했다.



사운즈S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사운즈S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시리즈는 신예 음악가를 위한 기획공연으로, 오는 9월 15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리사이틀을 준비했다. 김서현은 만 12세에 두 개의 국제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13세와 14세에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클래식계의 싹별로 떠오른 연주자다. 타고난 천재성과 완벽주의로 평가받는 치열한 노력으로 압도적 성과를 거둔 김서현에게 벌써 ‘젊은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사운즈S가 연초 기획공연 라인업을 발표하자마자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모은 주인공이다. 김서현은 하반기에 독일 유학이 예정된 가운데 사운즈S 기획공연 외에도 서울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계획이다. 사운즈S의 공연에 대해서는 “관객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공연인 만큼 더 설레고 기대가 된다.”라며 “존경하는 음악가 베토벤과 이차이의 곡들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사운즈S



작곡가 이하느리

이하느리는 예원학교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다. 4세에 음악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스크리아빈의 음악을 접하면서 작곡가를 꿈꾸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국내 작곡 콩쿠르를 석권하며 클래식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고, 작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바르토크Bartók 국제 콩쿠르 작곡부문에서 〈Vertigineux헝기증의〉라는 피아노 곡으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하반기에는 신작 초연을 포함해 많은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하느리는 “제 음악적 방향성에 더 확신을 갖고, 스타일 면에서 한층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공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사운즈S 디스커버리 무대에서는 그간 쌓아온 레퍼토리를 처음 선보였을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현재의 자신을 담아 보여줄 계획이다. 사운즈S라는 친밀한 공간에서 청중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작품들을 깊이 성찰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AG갤러리



작가 이나하

작년 하반기 AG갤러리는 ‘2023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나하 작가의 초대전 《아구아 비바-이나하》를 개최했다. 전시 제목은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동명 소설에서 가져왔다. 을유문화사에서 출간된 소설의 편집자 레터에 따르면, ‘아구아 비바’Agua Viva’는 ‘살아 있는 물’로 직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해파리를 의미한다. 편집자는 ‘살아 있는 물’이란 뼈대, 즉 형태를 강제하는 구조가 없는 자유로운 세계라고 해석했다. 이나하 작가는 전시에서 자유자재로 변하는 물의 속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수영하는 여자〉, 〈물장구〉 같은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물 속의 여자와 물의 작용, 반작용을 관찰했다. 이 전시에 앞서 서울대미술관에서 열린 그룹전 《미적감각》에서도 이나하 작가는 형태와 감각의 새로운 정의를 시도했다. 



‘금난새뮤직센터’
정기 공연

①
화승 부산 사옥
주차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메세나 공연〉

②
‘예술지구p’에서 열린
입주작가 김용 개인전

작은 틈에 심은 메세나, 시민과 예술을 잇다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의 가치 확산하기

지난 4월 부산 수영구 금난새뮤직센터에서 《라벨-피아노를 위한 독주 전국 연주회》가 열렸다. 피아니스트 김흥기의 신들린 연주가 끝나자, 앞에 앉은 소년이 “바로 이거지.”를 외치며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10대다운 솔직한 감정 표현에 웃음이 나왔다. 연주자와 가까워 몰입도가 높고, 중간중간 곡과 연주자를 소개해 클래식을 친근하게 전달한 공연장 분위기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다. 예술고 학생처럼 보였던 소년에게 이 공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다.

글·사진 오금아 부산일보 편집부 선임기자 | 사진 제공 문화재단1963, 화승, 예술지구p, 딥슬립커피

음악으로 소통하는 공간

‘금난새뮤직센터GMC’는 고려제강이 만든 복합문화공간 F1963에 위치한다. 2021년 4월 개관한 GMC에서 2024년 12월까지 열린 공연 횟수는 174회. 같은 기간 GMC 무대를 거쳐 간 연주자도 710명에 달한다. 실내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입소문이 나며 매회 120~130명의 관객이 찾아온다.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이 금난새 음악감독과 부산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며 손을 잡은 결과다. ‘젊은 음악가를 위한 동지’를 모토로 한 GMC는 실력 있는 청년 음악인 발굴에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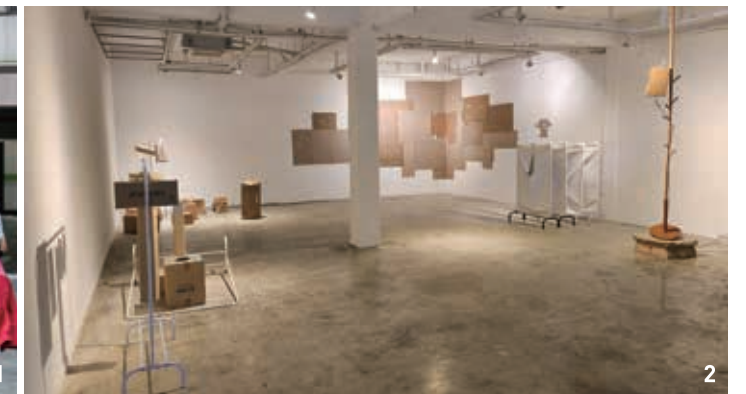
공간이 생기니 클래식 후원에 관심 있는 다른 기업과의 협업도 가능해졌다. 《GMC 서머 뮤직 페스티벌》에는 부산메세나협회와 지역 기업들이 함께한다. 고려제강의 문화재단1963이 세아그룹 산하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의기투합해 키스와이어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여는 오페라 음악회도 메세나 협업의 좋은 사례다. 기업이 직접 공간을 운영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메세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역 기업들이 만드는 갤러리

부산의 중견기업 에스제이탱커의 박성진 대표는 4년 전 부산 원도심인 중앙동에서 직장인 예술 문화 매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획자·카페 대표와 함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전시를 열면서 여러 작가를 만나 그들의 고민을 알게 되었다. 2023년 서면 인근으로 사옥을 이전하며 박 대표는 ‘무조건 갤러리 만들기’ 계획을 실행했다. 60여 평의 회의실을 갤러리로 변신시켜 ‘갤러리 범향’을 개관했다. 지난해 1월 개관 기념전의 주인공은 부산 청년 작가들이었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컬렉터에서 시작해 청년 작가의 응원군으로 변신한 박 대표는 ‘갤러리 대표’ 명함도 폈다.

부산대학교 인근 ‘제이무브먼트 아트스페이스&갤러리’도 기업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에서는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와 비평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진다. 화승은 부산 사옥 2층의 열린 공간 ‘스페이스 장천’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공간에서 공연도 개최한다. 발달장애 예술가 3인을 소속 작가로 고용, 화승코퍼레이션 예술작가팀을 운영 중이다. PDM파트너스는 사옥 공간 전체를 이용해 지역 작가의 전시를 열고, 건축주에게 문화 행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탠다.

금사공단에 있는 ‘예술지구p’는 옥성화학의 후원을 받았다. 공장 부지를 이용해 전시장, 레지던시룸, 밴드연습실, 공연장이 있는 예술공간을 만들었다. 예술지구p의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했다. 예술지구p 디렉터로 활동 중인 이창진 작가는 “부산에 레지던시가 더 많으면 좋겠다.”라며 기업의 유휴공간이 장·단기 예술 프로젝트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랐다.





3



5



6

③

'영주맨션'에서 열린
나나와 펠릭스의 전시
《땅거미가 지는 곳》

‘슬세권’ 문화공간의 가치

도시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기반시설만큼 작은 문화공간도 중요하다. 슬리퍼 같은 편한 차림으로 찾아갈 수 있는 소위 '슬세권' 문화공간은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게 돕는다. 생활권 기반의 작은 문화공간은 대형 공간을 만들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작지만 알차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는 공간과 함께 메세나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 동래구에 '스페이스 움'이라는 공간이 있다. 갤러리 겸 공연장과 카페가 어우러진 부산 하우스콘서트 문화의 선두 주자로, 5월 9일 《제577회 스페이스움 음악회》가 열렸다. 14년 역사의 민간 소공연장이 이룬 성과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은숙 대표는 다른 민간 공연장 대표들과 부산소공연장연합회를 결성해 지역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현재 28개 소공연장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데, 이들이 진행하는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페스티벌에 참가한 예술인은 436명, 누적 관객 수는 7,447명이었다. 올해도 6월과 11월, 30개 공간에서 30일 동안 릴레이 공연이 펼쳐진다.

미술 분야에서는 청년 기획자나 작가들이 힘을 합친 '오픈스페이스 배' '공간 힘' '영주맨션' '아이테르' 같은 공간이 있다. 증권 작가 방정아는 자신의 작업실 근처에 지역 작가와 산복도로 주민을 위한 갤러리 '제이작업실'을 만들었다. 2017년에 문을 연 카페 '딥슬립커피'는 작가들이 전시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인정받는 공간이 되었다. 이런 공간들은 젊은 작가에게 예술 실험의 장인 동시에 작업의 깊이를 더하는 예술 성장의 터전이다.

작은 공간의 지속성을 위해

“작가로 성장하며 전시했던 공간 대다수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비영리 공간은 운영진이 외부 기획 등을 통해 돈을 벌어서 밀어 넣는 구조예요. 최소의 인건비만 보장되어도 전시 공간이 유지될 수 있어요.” “외국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같은 문화공간에 기업 후원이 없다는 사실을 신기해하더라고요.” “매주 1~2회 공연을

④

딥슬립커피에 전시된
배지민 작가 작품

⑤

방정아 작가가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에 만든
전시 공간
'제이작업실'

⑥

다대포에서 열린
실험실C의
《1제곱미터의 우주》

올리던 소공연장 한 곳이 문을 닫았는데 음악인들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공연장 임대료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작은 문화공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문화를 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분야도 다양하고 형식도 다양하다. 특히 민간 문화공간의 변화는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원항미 선임연구원은 “문화공간의 공공성을 주체가 아닌 역할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했다. 민간 공간이라도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강화가 일어난다면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성을 가진 작은 문화공간에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처럼 각 문화공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딱 맞춰 지원할 때 효과가 가장 높다. 같은 의미로, 기업의 예술가 지원도 예술가 친화적으로 이뤄질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 미술 분야를 예로 들면 공간 후원, 장학금·창작 지원금 지원, 멘토링 교육 사업 등이 있다. 장르별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 예술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겠다.

문화예술 지원 틈새를 찾는 메세나

지역과 생활사, 공간을 연구하고 이를 예술로 풀어낸 실험실C의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켜봤다. 산길·해안산책로·강변 생태공원을 오르내리며 지역과 예술을 연결하는 실험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린 '단비'가 메세나였다. BNK부산은행의 기부금에 부산문화재단 사업비가 매칭되어 지원이 이뤄졌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가 다양하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지원 금액도 기간도 제한적이다. 여기서 기업의 역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메세나는 문화예술 지원의 폭을 넓힌다. 공적 지원제도의 틀 밖에 있는 새로운 예술의 싹을 틔우고 키우는 것도 메세나라서 가능하다. 메세나의 뜻을 가진 기업이 문화예술의 틈새에 시선을 두기를 바란다. 거기에 문화예술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작은 공간에서 큰 메세나가 자랄 수 있고, 작은 메세나에서 더 큰 예술이 꽃필 수 있다. 

SPOTLIGHT

하루 두 번, 물길이 열릴 때
찾아갈 수 있는 낭만적인 공간
‘예술의 섬 장도’에는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몰입하는
창작스튜디오가 있다.

여수의 명소
‘GS칼텍스 예술마루’에 이어
작가를 위한 선물로 자리잡은
메세나 공간이다.

이번 호 SPOTLIGHT는
예술가 레지던시를 비롯해,
평범한 일상에 예술적 영감을 더하는
선물 같은 메세나 이야기를 모았다.

태광그룹은 광화문의
랜드마크 설치작품으로 잘 알려진
홍국생명빌딩에서
모두를 위한 음악회를 열었고,
한국메세나협회는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손쉬운 문화 선물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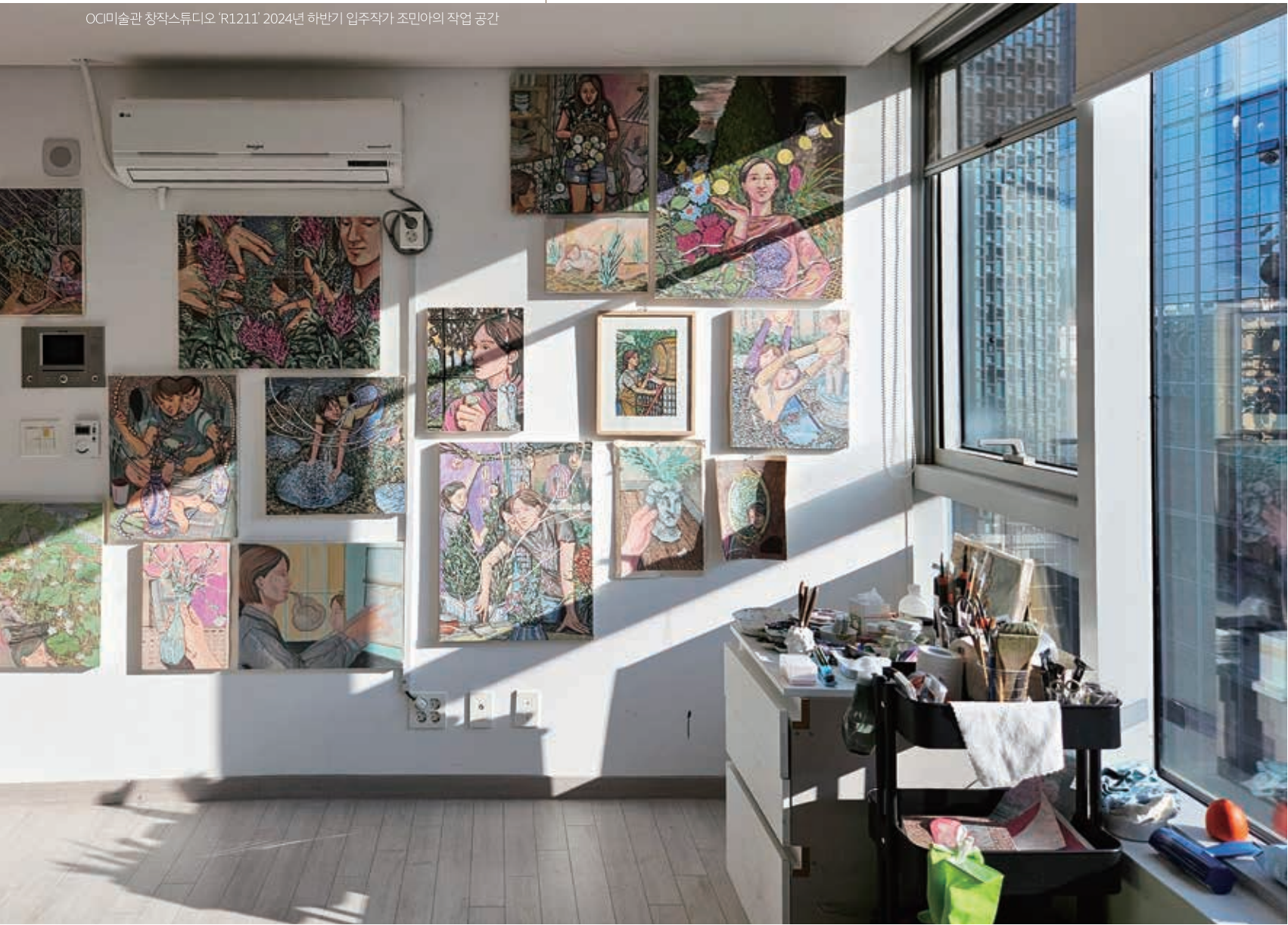


창작자의 방,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작업

메세나 기업이 운영하는 예술가 레지던시
어떤 공간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예술가가 존재하는 방식이 된다. 장소
성場所性은 작품의 주제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평범한 일들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머무는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새로운 발상을 얻기도 한다. 메세나 기업이 운영하는 예술가 레지던시는 긴
안목으로 창작의 토양을 가꾸어 문화예술 발전의 디딤돌을 놓는 사업이다.

글 편집부 | 사진 제공 OCI홀딩스, OCI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R1211' 2024년 하반기 입주작가 조민아의 작업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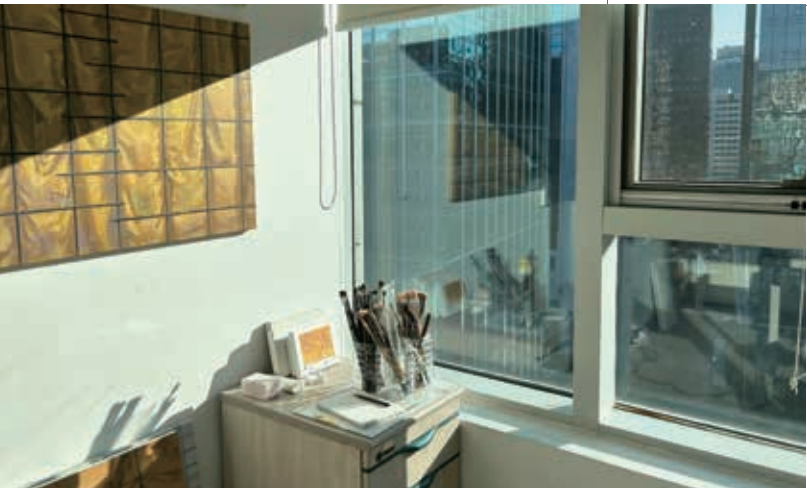


미켈란젤로가 머문 곳
예술가 레지던시의 기원에 관한 설명은 다양하다. 오늘날 메
세나의 표상으로 손꼽히는 이탈리아의 메디치가家를 떠올리
는 이도 많을 것이다. 로렌초 데 메디치는 소년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집에 머물
며 자유롭게 작품 활동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의 예
술가 레지던시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처음 제도화한 것은 로
마 아카데미 드 프랑스 Académie de France à Rome라는 견해가 일반적
이다. 이곳은 17세기에 루이 14세가 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
한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미술 학도 장학제도인 로마 대상
Prix de Rome을 제정해 수상자들이 로마에 머물며 예술 세계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빌라 메
디치로 자리를 옮겼는데 상주 예술가들을 하숙생pensionnaires이
라고 불렀다. 숙박시설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펜션pension이라
는 단어는 본래 이곳의 예술가들에게 제공되는 숙박과 식사
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도심에 머무르기, OCI미술관의 'R1211'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예술가 레지던시가 등장한 이래,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활성화와 문화도시
조성을 앞세우면서 더욱 활발히 설립되었다. 레지던시 프로
그램이 작가 지원을 넘어 작가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촉진하
고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늘린다는 관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이후의 경기 불황 같은
요인이 겹치면서 레지던시 운영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공립
미술관이나 지역 문화재단의 레지던시가 명맥을 잇는 가운
데,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민간 레지던시 중 상당수가 운
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송암문화재단 산하 OCI미술관은 작
가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창작스튜디오 R1211을 운영
해오고 있다. R1211은 서울 종로구 한복판의 오피스텔 건
물 12층에 자리한 레지던시다. 레지던시 1211Residency 1211을
축약한 명칭부터 도심 빌딩 숲의 레지던시를 표방하고 있다.
1211이라는 숫자는 오피스텔의 호수를 가리킨다.

OCI미술관은 레지던시를 개관할 때부터 대부분의 예술가
레지던시가 도심과 동떨어진 곳, 인적이 드물고 자연과 가까



'R1211' 2024년
하반기 입주작가
박종호의 작업 공간

운 곳에 위치한다는 특성에 주목했다. 도시의 삶, 복잡한 관
계와 사회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고 작품 세계에 반영하는
작가들에게 도심 속 레지던시가 충분히 매력적인 작업 공간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업실 한 쪽 벽면의 통창
너머로는 고층 건물과 차량 행렬, 수많은 인파와 불빛이 일
렁이는 대도시의 풍경이 펼쳐진다. 작가들 사이에서는 '뷰 맛
집'이라는 평판이 자자하다.

작가와 팬이 만나는 오픈 스튜디오
메디치가를 비롯한 유럽의 예술 후원인들이 살롱을 열어 당
대 예술가들이 만나 영감을 주고받는 장소를 제공했듯이, 예
술가 레지던시는 입주작가들이 상호 교류하거나 팬과 가까
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 이
상의 기능을 지향한다. OCI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 R1211
은 6개월의 입주 기간에 오픈 스튜디오와 해외 작가 교류
프로그램, 작가 심층 인터뷰 촬영 등 여러 형태로 작가들을
지원한다.

특히, 오픈 스튜디오는 미술 애호가들을 작업 공간으로 초대
해 그간의 작업 여정을 공개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팬에게
는 실제 작업 공간을 둘러보며 작가에게 작업 과정과 작품
설명을 듣는 드문 기회이고, 작가는 감상자의 시선을 통해 자
신의 활동을 성찰할 수 있다. 작가가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
는 바와 감상자가 발견하는 것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품 세
계가 확장되는 것은 오픈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의 묘미다.



202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학 레지던시 사업을 시작하는 협성 마리나 G7 호텔 객실	12년째 이어온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 방’ 서울프린스호텔의 ‘소설가의 방’은 문학 부문을 대표하는 민간 레지던시다. 2014년에 시작되어 벌써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윤고는 작가가 한 잡지에 기고한 ‘호텔 프린스의 추억’이라는 칼럼을 호텔 직원이 우연히 접하면서 출발	했다. 독서경영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서울프린스호텔은 작가에게 창작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텔이 보유한 객실이라는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젊은 작가를 위한 집필실을 구상했다. 첫해 10명의 작가로 출발한 ‘소설가의 방’은 현재 상·하반기 6명씩 매년 12명의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작가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한다. 입주작가에게는 1인 1객실과 식사가 4~6주간 제공된다. 프린터를 비롯해 호텔의 라운지, 미팅룸 등 부대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자료 수집과 출판 회의 같은 활동을 하 기에도 최적의 환경이다.	비일상의 공간과 호텔이 위치한 서울 명동 거리 특유의 정취도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소설가의 방’ 출신인 장강명 작가는 “명동 일대를 거닐며 어떤 이야기를 쓸지 생각했던 시간도 소중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에는 입주작가 8명이 호텔이라는 공간을 모티프로 쓴 여덟 편의 이야기를 엮어 『호텔 프린스』라는 소설집을 펴 내기도 했다. 작년에는 ‘소설가의 방’ 10주년을 기념해 또 한번 특별한 작품집이 출간되었다. 장강명, 정선임 등 10명의 소설가가 ‘체크인’이라는 주제로 쓴 단편소설집 『당신을 기대하는 방』과 우다영, 도재경 등 15명의 소설가가 ‘체크아웃’이라는 주제로 쓴 에세이 모음집 『쓰지 않은 결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독특한 공간을 매개로 한 작가 네트워크를 지속할 방안을 찾고 있다.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전체 입주작가를 다시 호텔로 초대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바라보는 작가 레지던시의 의미는 ‘자기 확장 기회’이다. 사업 담당자는 “작가란 대중보다 한발 앞서 삶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며, 낯선 공간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편리함이나 쾌적함의 추구를 넘어 새롭게 자신과 세계를 만나는 도전이자 경험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 신규 문학 레지던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메세나에 동참하려는 기업과 함께 문학 레지던시 사업의 확장을 모색했다.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 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전파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해 2025년에는 두 개의 신규 레지던시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부산의 중견기업 협성르네상스가 운영하는 협성 마리나 G7 호텔은 6월부터 12월까지 7명의 작가에게 각 1개월씩 입주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문학을 포함한 소설 장르에서 3년 이상 창작 활동을 지속해온 작가가 지원 대상이다. 협성 마리나 G7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초고층 건물로, KTX 부산역과 직접 연결되는 우수한 접근성과 인프라 등을 갖춰 공모 전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모았다. 주식회사 남이섬의 호텔정관루와 함께하는 문학 레지던시도 9월에 개관한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이섬은 수도권	
--	---	---	--	---	--



① 2014년부터 작가들의 창작 산실 역할을 해온 서울프린스호텔 ‘소설가의 방’
②③ ‘소설가의 방’ 1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소설과 에세이 모음집 표지
④ ‘소설가의 방’ 출신작가 소설 모음집 표지

에서 가까운 자연휴양지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곳이다. 호텔정관루 역시 예술 친화적인 호텔을 표방하며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꾸민 객실이 유명하다. 이곳 미술의 방에 머무는 작가가 써 내려 갈 이야기가 벌써 궁금해진다. 📖

광화문 중심에
우뚛 선
예술과 메세나

태광그룹

글
조승리
비즈니스포스트
기자

사진 제공
태광그룹

도시가 가장 바쁜 시간, 광화문 홍국생명빌딩 앞을 지나는 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걸음을 멈추게 된다. 고개를 들어 22미터 높이의 거대한 조형물, 조나단 보로프스키의 <해머링 맨>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35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망치질. 노동과 인간의 가치를 웅변하는 이 작품은 예술을 매개로 도시와 사람을 잇는 메세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조대형 조형물 <해머링 맨>이 설치된 광화문 홍국생명빌딩. 지난 연말에는 해피 뉴 이어 해머링 맨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홍국생명빌딩
1층 로비에 설치된
강익중 작가의
〈2010 아름다운 강산〉
©Yolanta C. Siu

조각상이 된 철학, 〈해머링 맨〉

광화문 홍국생명빌딩 앞의 〈해머링 맨〉은 단순한 대형 조형물이 아니다. 이 작품은 미국 출신 조각가 조나단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가 제작한 공공미술 시리즈 중 하나로, 세계 11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의 〈해머링 맨〉은 2002년 7번째로 제작된 작품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높이 22미터, 무게 50톤, 특히 망치질을 하는 오른팔만 3.5톤에 달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동절기에는 6시까지) 35초마다 한 번씩 꾸준히 망치질을 반복한다. 이 정적인 듯 동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기술의 시대에도 여전히 가치 있고 신성한,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을 느낄 수 있다.

망치질이라는 반복 동작은 단순한 노동의 재현을 넘어선다. 보로프스키는 〈해머링 맨〉을 통해 세계 곳곳의 일하는 사람들, 즉 장인, 광부, 농부, 프로그래머, 예술가까지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을 기념하고자 했다. 인간의 육체적 활동이 점점 사라지는 오늘날, 〈해머링 맨〉이 전하는 메시지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이 작품이 기계 장치로 구동된다는 점도 역설적으로 메시지에 힘을 실는다. 특히 서울의 〈해머링 맨〉은

발바닥에 구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유지보수 효율이 높은 점도 특징이다. 이 작품은 예술성과 기능성, 철학이 결합된 대표적 공공미술 사례로 평가받는다.

태광그룹 메세나의 상징이자 출발점

홍국생명빌딩 주변 공간은 이 조각상을 중심으로 도심 속 예술 산책로처럼 꾸며졌다. 네덜란드 건축집단 메카누mecanoo Architecten가 설계한 ‘해머링맨 광장’은 빌딩 앞의 도시 공간을 조형적으로 재구성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감성을 제공한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조경, 조명을 따라 흐르는 벤치, 작품과 나무가 어우러진 휴식 공간은 도시 속에서 예술과 삶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국생명빌딩은 일상적인 오피스 공간을 넘어 태광그룹의 예술 철학이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규정된다. 건물 내부에는 강익중의 〈아름다운 강산〉, 프레 일젠Fré Ilgen의 〈당신의 긴 여행〉을 비롯해 로메로 브리토Romero Britto, 줄리안 오피Julian Opie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이 동선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계단, 복도, 심지어 에스컬레이터 주변까지도 전시장의 일부처럼 활용되며,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

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규정하고 그 정체성을 강화해온 태광그룹의 사옥 빌딩은 예술과 비즈니스의 동행을 일상화하려는 기업 철학을 드러내는 것만 같다.

세화예술문화재단과 도심 속 열린 미술관

태광그룹은 예술 후원을 넘어 예술이 삶 속에 스며들게 한다는 오랜 철학을 토대로 메세나를 추진해왔다. 2009년 설립된 세화예술문화재단은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공공을 위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 기여라는 목표를 세웠다. 세화예술문화재단은 도심 속 열린 미술관이라는 개념을 구현한 세화미술관을 운영하며, 예술 대중화의 전진 기지로 기능해왔다.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제1종 미술관으로서 그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중과 가까이 호흡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모색한다.

세화미술관은 매년 수준 높은 기획전을 선보이며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영하는 세계: Bed, Bath, Bus》 전시를 개최했다. 인간의 감각과 사유, 현실과 비

현실의 경계를 탐색하는 이 전시는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아우르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다. 특히,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큐레이션으로 일상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환경을 제공하며, 예술을 일상 속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단순한 전시 공간에 그치지 않고 소장품 해설 프로그램인 ‘세화아트투어’를 통해 관람객에게 더 깊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세화미술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수어 해설을 지원하는 ‘세화아트투어: 배리어프리’를 운영해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문화 접근성이 낮은 관람객들을 위한 배려는 진정성 있는 메세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세화예술문화재단은 예술 인재 발굴과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예원학교 음악부와는 2013년부터 꾸준히 협력해 정기 연주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대 경험과 예술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예원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신년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 도심 속 빌딩 로비를 감동의 무대로 바꿔놓았다.

세화미술관
전경

짧은 점심시간을 풍요롭게 채운 음악회

세화미술관이 도심 속 열린 미술관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동안, 홍국생명빌딩 로비에서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을 콘셉트로 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태광그룹은 2025년 새 봄을 맞아 4월 한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직장인과 시민을 위한 열린 공연 《태광 봄 음악회》를 진행했다. 전문 연주자와 거리 연주자,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매 공연 로비를 가득 채운 직장인과 시민들의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모든 공연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생중계되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관객들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했다.

총 16회의 공연을 통해 무대에 선 연주자는 모두 46명. 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생 출신 연주자들과 이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예술 유망주의 열정과 수준 높은 연주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태광그룹 장학생 출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은 어린 시절 ‘기적의 피아노’ 주인공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는 장학생이 예술가로 성장해 다시 관객 앞에 서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전문 연주자의 무대와 또 다른 버스커들의 생동감 넘치는

공연도 음악회를 풍성하게 만든 기획이었다. 태광그룹은 4월 음악회 개막에 앞서 공연에 참여하기 원하는 버스커를 모집했고 첼로버스커 하루, 김홍석 듀오, 김도브라스, 퍼플벨, 레인어클락 등이 개성 넘치는 공연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버블ซิส터즈 멤버 랑쑤, 판소리 유튜버 밤양갱 등 다양한 게스트가 참여해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완성했다.

예술영화 전용관의 대명사 씨네큐브

점심시간의 짧은 음악회에서 예술의 감동을 만끽한 시민들은 홍국생명빌딩에 위치한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씨네큐브는 2000년 개관 이후 서울 대표 예술영화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두 개의 상영관을 모두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하며 예술영화 지킴이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도 전 좌석 교체, 단차 조정 등 리뉴얼을 추진하며 관객 중심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급변하는 극장 산업 속에서 사랑받는 예술영화관으로 오래도록 자리하겠다는 의지였다.

사회적 약자와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장벽 낮추기도 씨네큐브의 지향점이다.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회’를 매월 개최하며 영화 〈미나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리빙: 어떤 인

생〉등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및 자막과 함께 상영했다. 상영 후에는 세화미술관과 연계한 도슨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예술 간의 융합과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2025년에는 개관 25주년을 맞아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초청해 특별전을 개최했다. 《고레에다와 함께한 25년》이라는 제목으로 대표작 13편을 선보였고, 감독과의 대화와 마스터클래스를 함께 진행해 국내외 영화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씨네큐브가 한국 예술영화의 다양성과 진정성을 지키는 공간임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태광그룹 미디어계열사 티캐스트가 운영하는 영화 채널 씨네프로 예술영화 지킴이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씨네프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화 관련 행사에 공식 미디어 스폰서로 참여하며 영화 산업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법첩으로 되살린 전통예술의 정수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예술의 자력만으로 영위하기 힘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메세나의 중요한 역할이라면, 한국 서예 국보급 법첩 발간이야말로 태광그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었을 것이다. 법첩(法帖)이란 서예가의 필적을 익히거나 감상할 목적으로 만든 책을 뜻하는데, 태광그룹은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국보급 서체를 복원해 책으로 펴내는 사업을 추진했다.

세화예술문화재단은 예술의전당과 함께 국보급 서체 15선을 선정해 총 15권의 법첩으로 발간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와 신라 진흥왕순수비에 사용된 서체를 비롯해 조선시대 안평대군, 석봉 한호, 추사 김정희 등의 글씨를 시대별·인물별로 복원하고 개별 출간한 작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고, 법첩의 완간을 기념한 특별전 《전통이 미래다》를 통해 고전 서체의 아름다움과 현대 서예가들의 해석을 동시에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첩 발간은 우리 고유의 서체가 가진 독자성과 우수성을 증명하고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법첩은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예술 애호가들의 감상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지만 교육 도구로서도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주요 공공립 도서관에 배포되어 서예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한국 미술의 근간인 서예의 가치와 위상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조



1



2

매일 점심시간에 다양한 장르와 연주자의 무대를 선보인 《태광 봄 음악회》



명해 현대 미술의 지평을 넓히는 예술 활동에도 기여한다. 전통예술의 복원 및 보존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메세나의 영역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태광그룹의 메세나는 예술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핵심에 두고 확장되어 왔다. 예술을 통해 시민사회와 공존하고,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광화문 중심에서 묵묵히 망치질을 이어가는 〈해머링 맨〉처럼 태광의 메세나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과 사회를 두드린다. 

❶
지난해 개관 24주년 기념 기획전을 진행한 예술영화관 ‘씨네큐브’

❷
국보급 서체 전시회 〈제 3회 한국서예명적 법첩 발간 기념전: 전통이 미래다〉

진실한 감정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카네기홀 전석 매진 소식에 한껏 고무된 것일까. 연주자는 자신의 기량과 끼를 무대에서 마음껏 발산했다. 한 곡이 마무리될 때마다 객석 곳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던 탄성은 끝내 뜨거운 환호로 바뀌었고 기립박수로 이어졌다. 무대의 주인공은 한국메세나협회의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자 선우예권이였다.

미국 현지 시각 5월 2일 오후 7시 30분, 뉴욕 카네기홀의 젠켈홀Zankel Hall에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한국 클래식 연주자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로 성사된 공연이었다. 선우예권에게는 2009년 공연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카네기홀 방문이었다. 성공적인 무대를 마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카네기홀은 명성과 존경이 공존하는 무대입니다. 이번 후원을 결정해준 기업들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포럼 개인 기부자들의 소중한 지원 그리고 한국메세나협회와 KMF의 도움으로 젠켈홀에서 리사이틀을 열게 되었습니다. 함께 호흡한 관객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날은 제게 오래도록 특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한 선율로 엮은 프로그램

‘특별한 기억’이라 언급한 만큼, 이날의 프로그램은 선우예권이 오래도록 소중히 연주해 온 그의 주요 레퍼토리 작곡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글
이의정
전 월간 《객석》 기자

사진 제공
편집부,
마스트미디어

가로 채워졌다. 부드러운 낭만성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인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 그리고 쇼팽과 라흐마니노프가 그 주인공이다. 2009년 인터라켄 클래식을 시작으로 2012년 윌리엄 카펠 피아노 콩쿠르, 2013년 센다이 콩쿠르,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에서 우승한 그는 이 시기부터 꾸준히 고전과 낭만 시대 작품에 강점을 보여왔다. 나아가 이번 리사이틀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 자기만의 시선과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관객이 평소에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에 잠시나마 안락한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나름의 선율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각 곡의 조성과 주요 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거든요. 첫 곡인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곡〉은 C장조로 끝나고, 이어지는 쇼팽의 〈베토레〉는 반음 위인 C#음에서 시작하여 F#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다음 작품인 클라라 슈만의 〈로베르트 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F#단조에서 시작하죠. 마지막 곡으로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은 다시 C장조로 돌아와 전체를 갈무리합니다.”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는 의미

이번 리사이틀의 마지막 곡으로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는 선우예권과 여러 인연이 있다. 앞서 열거한 모든 콩쿠르 우승 성적이 클래식 음악계 안에서 그의 이름을 알렸다면, 2017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은 그의 이름을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린 일이었다. 그때의 결선곡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었다. 라흐마니노프는 그에게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을 가져다준 작곡가이다.

또한 그는 가장 최근 음반인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 Rachmaninoff, A Reflection/2023〉을 통해 전국 투어 공연도 가지며 작곡가의 여러 작품을 깊게 탐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마스트미디어가 주최하는 ‘콘체르토 마라톤 프로젝트’에서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대곡이라 일컫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지휘자 이승원이 이끄는 수원시향과 한 공연에서 연속으로 연주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로서 자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작곡가죠. 물론, 다른 작곡가와 비교해 저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악보에 음표가 무척 많아 이따금 압도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연주해 보면 그가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음의 움직임이 연주자의 손에 무척 잘 맞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꾸밈없이 정직하게 감정을 쏟아내기 좋아요. 머릿속에 복잡하게 남아있던 생각이 오히려 개운하게 풀어지는 느낌이지요.”

다양한 경험이 만든 객관적인 연주

고전과 낭만을 주요 레퍼토리로 삼는 선우예권이지만, 그의 장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과하지 않은 감정선’이다. 한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는, 잘 잡힌 균형과 안정성이다. 어쩌면 한국, 미국, 독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수학하며 다양한 양식을 직접 피부로 접해왔던 예술 여정의 영향일지 모른다. 그는 예원학교·서울예고에서 신민자·김선화를 사사하고, 미국 커티스 음악원·줄리아드 음악원·매네스 음악대학에서 세이무어 립킨Seymour Lipkin·로버트 맥도널드Robert McDonald·리처드 구드Richard Goode를 사사했으며, 독일 하노버 음대에서 베른트 괴츠케Bernd Goetzke에게 음악을 배웠다.

“2016년에 독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수학하지 않았다면, 2017년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만큼 독일에서의 삶은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고, 음악의 견고함을 쌓는 기회였죠. 유럽이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라서 그럴까요? 음악이라는 문화가 그들 삶에 깊이 내재해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자면, 미국은 연주자 개개인을 향한 진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유럽은 작품을 쓴 작곡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태도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빠르게 달리기보다 진실하게 걷기

올해가 아직 상반기임에도 그는 이미 몇 차례의 국내 실내악 무대와 협연 무대에 올랐다. 지난 3월 말에는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스페인의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 Pablo Ferrández와의 듀오를 비롯한 실내악 무대를 선보여, 봄날에 어울리는 연주



를 관객에게 선물했다. 또한 정명훈 지휘자가 이끄는 KBS교향악단과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들고 전국의 여러 지방 공연장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작년에는 베이스 연광철과 가곡 리사이틀을 함께 했으니, 그의 폭넓은 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독주회, 실내악, 협주곡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울림을 조절하고 색채를 만들 수 있는 독주는 분명 매력이 크지만, 다양한 편성 그리고 다양한 연주자에 맞추어 무대를 꾸릴 때 자극되는 제 안의 예민한 감각도 항상 신선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거든요.” 여러 피아니스트가 ‘영제’라는 이름을 달고 10대 중반부터 빠르게 달리는 이 분야에서, 혹자는 20대 중반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선우예권은 비교적 느리게 출발한 편이라 말

하곤 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높이 비상했고, 현재는 국내 그 어떤 피아니스트보다 중심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좋은’ 성장이란 무엇일까. 그는 피아니스트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와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상투적으로 ‘좋은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답하곤 해요. 진부하고 모호한 표현인 ‘좋은’이란 말에는 너무나 많은 가치와 의미가 담길 수 있겠죠. 저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연주를 해도 늘 부족함을 먼저 느끼고, 더 채우기 위해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제가 가진 음악을 향한 호기심과 애정 때문에 생긴다고 믿어요. 저에게 ‘좋은’이란, 아마 이 진실한 감정의 불씨를 잃지 않고 걸어간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게 피아니스트로서 제가 가진 목표입니다.” **W**

2025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선보인 선우예권과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의 듀오
©Sungchan Kim

선우예권의
카네기홀 연주
©Nathan Park



경험소비는 트렌드, 문화예술소비는 품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와 ‘문화 선물’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스타 플레이어의 공연이나 블록버스터 전시는 몸살을 앓을 만큼 인파가 몰린 지 오래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문화예술 전반의 소비 저변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와 ‘문화 선물’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글 편집부

무엇을 경험하고 공유할까?

긴 불황과 소비 침체 와중에 이례적으로 호황을 구가하는 분야들이 있다. 야구장, 콘서트, 해외여행에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 몇 년째 뜨거운 파인 다이닝의 인기를 생각하면 가성비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요즘 잘 되는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험’이다. 특별한 경험을 SNS에 공유하는 것은 MZ세대가 추구하는 미덕이다. MZ세대는 경험을 통해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존재한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그때 그때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고 예술시장도 그 영향을 받는다. 미술 분야는 작품에 투자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흐름과 색다른 것을 경험하고 공유하려는 심리가 맞물려 경험소비의 한 축을 차지했다. 반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확대된 미술시장 규모가 지난해와 올해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잘 되는 전시의 이면에 외면 받는 예술가도 적지 않아, 문화예술계의 양극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장르 간 불균형은 더욱 고질적인 문제다. 비인기·비주류 장르가 겪는 어려움은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의 직접 지원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 향유자

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만이 문화예술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비인기·비주류 장르의 활성화를 이끄는 길일 것이다. 불황 속에서도 경험소비가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지금이 문화예술 소비 기반을 확대할 기회이고, 소비자가 일부 인기 장르나 아티스트에 편중되지 않고 폭넓은 문화예술 경험을 시도할 계기를 마련하는 메세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경험 소비 트렌드는 기업의 접대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상연한 《헤다 가블러》. ©LG아트센터, Studio AL

문화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접대는 기업과 고객사의 관계를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경험의 장으로 다시 정립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협력·고객사에게 문화를 선물하는 기업들

경기도 팔당호수 드라이브 코스에 자리잡은 카페 썬. 루프탑에서 한강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이곳에서 열

리는 전시를 감상하기 위해 찾는 방문자도 적지 않다. 주식회사 이노밸류는 지난해 8월, 직원과 고객사를 이곳으로 초청해 특별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연지 작가 개인전 《라르고 Largo》의 오프닝 행사를 겸한 인뮤직협동조합의 공연은 헨델의 〈라르고〉를 비롯해 비발디의 〈사계〉,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 미술, 음악, 장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모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시간을 선물했다.

이노벨류는 이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메세나협회의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지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캠페인 지원금을 활용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협력·고객사에게 문화 선물을 보내고 있다. 주택개발기업 평화디앤씨는 지난해 고객과 거래처에 연극 《갑신의 거》 티켓 300장을 선물했다. 대구에 소재한 신라철강은 지난 연말 VIP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국악연주단 선풍의 공연과 함께하는 송년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지원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대한 특별한 인상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주·유흥 접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느꼈다.”라며 “접대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도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1억 2,000만 원까지 증가

1억 원 (한도액)

2,000만 원

일반기업업무추진비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국메세나협회가 5월 22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 개최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방안 설명회'

문화 선물을 위한 세제 혜택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는 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선물 금액만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 티켓 구입비 ▶ 예술인(단체)을 초청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공연비·출연료 ▶ 국내 작가의 문학·인문·예술도서 구입비 ▶ 국내 아티스트의 음반 구입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의 문화 선물은 ‘문화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문화접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오랜 기간 사용된 접대비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2024년부터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문화접대비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기업업무추진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한도액이 있는데,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그 한도액을 초과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고객 및 업무관계자 등에 연극·뮤지컬·오페라·전시 등의 티켓이나 도서·음반·미술품 등을 구입해 선물하는 경우 지출한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이다.

이영애의 《헤다 가블러》와 함께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방안 설명회

문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고, 선물하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해 문화예술계를 간접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문화를 선물하는 기업에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실질적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업의 건강한 접대문화 정착을 이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한국메세나협회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화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선물 받을 사람의 기호와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까다롭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업 실무자를 초청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방안 설명



이노벨류가 고객사를 위해 개최한 공연 〈음악과 미술의 만남-라르고〉. ©이노벨류

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에는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설명회와 공연 관람을 진행했다. 문화 선물의 장점과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소개하는 설명회에 이어 LG아트센터 25주년 기념 제작 연극 《헤다 가블러》를 함께 관람하며 문화 선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적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동명 고전 명작이 원작인 《헤다 가블러》는 배우 이영애가 32년만에 연극무대에 복귀한다는 소식으로도 화제가 된 작품이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방안

- 거래처가 선호하거나 관심있는 분야의 공연 티켓 구입 또는 대관 초청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선물
- 박물관, 미술관 운영 시간 외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
- 예술인(단체) 초청 공연 및 전시 개최
- 거래처에 필요한 문화예술 강연 개최
- 도서, 음반 등 직접 구매해 선물
- 지역 문화관광축제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 선물

‘LG아트센터 서울 기프트카드’로 문화 선물하기

공연·전시 티켓을 직접 골라 선물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예매권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이 좀 더 자유롭고 손쉽게 문화 선물을 시도할 수 있도록 LG아트센터 서울과 기프트카드를 마련했다. 기획공연·대관공연 구분 없이 LG아트센터 서울의 모든 티켓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10만 원권과 50만 원권의 2종으로 구분된다. (구매 문의 1661-0017) 



저축은행이 오직 공익만 바라보는 이유

이탈리아
저축은행재단의
메세나

글 사진 정준모 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서구 문화예술계를 보면 부러운 것이 한둘이 아닌데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전문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가 아닌 기업 홍보마케팅 담당자가 사회공헌을 전담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지원만큼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저축은행재단의 탄생과 변신

1990년 출범한 이탈리아 저축은행재단(FOB, Le Fondazioni di Origine Bancaria)은 많은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저축은행재단은 오랜 역사를 지닌 비영리 활동의 새로운 형태로 은행 시스템의 개혁 과정에서 탄생했다. 과거 이탈리아에는 지역 기반의 공익적 성격을 띤 저축은행들이 있었다. 이들 은행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함께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에 공헌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유럽의 외환 위기로 이탈리아도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고치는 제도개선이

토리노의 이탈리아 미술관, 인테사 산파올로은행의
본점이 있는 튜리넨티 궁전 ©Andrea Guernani

필요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공익성’과 은행으로서 ‘영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1990년 아마토 법Amato Law을 제정해 공공 은행을 민영화하고, 은행 간 인수 합병을 통해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특히 전통적인 저축은행의 주식 등 자산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의 재단 설립을 허용해 특유의 은행 시스템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사회와 은행 간 연계를 유지하며 금융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고쳤다.

1998년 치암피 법Legge Ciampi과 1999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재단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은 더욱 구체화되었

다. 법률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은행의 지배에서 벗어나 본연의 공익적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Banche conferitarie’과 ‘비영리 공익 재단FOB’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은행 본연의 영리추구와 사회공헌을 명확히 구분해, 은행의 효율성과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저축은행재단은 역사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저축은행들의 공익적 DNA를 계승해 설립된 이탈리아의 독특한 비영리 재단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재단의 사명

이탈리아 저축은행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문화, 예술, 과학, 교육,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은행개혁을 통해 분리된 재단은 과거 저축은행이 수행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대신한다. 특히 정부나 공공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혁신적인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또 이탈리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동시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사회공헌을 위해 다양한 비영리 조직에 재정적 지원을 수행해 활동을 돕는다. 또 은행이 속한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하며 때로는 재단이 직접 문화 행사 개최, 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도 수행한다. 다른 재단, 공공기관, 민간 단체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나 비영리 단체 운영 및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동시대 미술을 지원하는 토리노저축은행재단

이탈리아에서는 수많은 저축은행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재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는 기능에 충실하며, 예술 작품을 수집 보존해 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 즉, 저축은행재단은 미술관을 설립 운영하거나 특정

미술관에 대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일례로 토리노저축은행재단Fondazione CRT은 2000년에 설립된 ‘근대 및 동시대 미술의 지원을 위한 재단’을 통해 25년간 4,100만 유로(약 600억 원)를 투입해 300여 명의 작가가 남긴 870여 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동시대미술 컬렉션을 이룩한 재단은 이를 토리노 근현대미술관Galleria Civica d'Arte Moderna e Contemporanea di Torino과 카스텔로 디 리볼리Castello di Rivoli 동시대미술관에 장기 대여해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인과 공유하고 있다.

방대한 컬렉션을 통한 사회공헌

로마재단Fondazione Roma은 1539년 고리대금 관행에 맞서 교황 바오로 3세의 칙서로 설립된 로마의 ‘자비의 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초 금융개혁으로 저축은행의 사회적 포용사업을 물려받은 로마저축은행Cassa di Risparmio di Roma이 등장했고, 2007년 자선 활동에 특화된 로마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재단의 컬렉션은 15세기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 특히 17~18세기 후기 바로크 작품을 망라한다. 교황 마르틴 5세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는 일련의 교황 메달을 포함해 2,500개 이상의 메달과 주화컬렉션이 매우 중요하게 꼽힌다. 소장품 중 약 400여 점을 교대로 로마의 시아라 궁전Palazzo Sciarra에 전시하고 있다.

카리플로재단Fondazione Cariplo은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담한다. 지역미술관·박물관의 미술품 컬렉션을 강화할 목적으로, 아트게이트Artgate라는 별칭을 지닌 인테사 산파올로 문화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컬렉션을 확보하고 밀라노, 비첵차, 나폴리, 토리노 등 4개 도시에 이탈리아 미술관Gallerie d'Italia을 각각 운영하며 총 1,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독립된 재단의 방향과 우리의 메세나

이탈리아 저축은행재단은 우리의 메세나와 CSR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영리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명확히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기부와 봉사활동을 넘어, 독립된 재단



로마저축은행의 컬렉션을 전시하는 시아라 궁전의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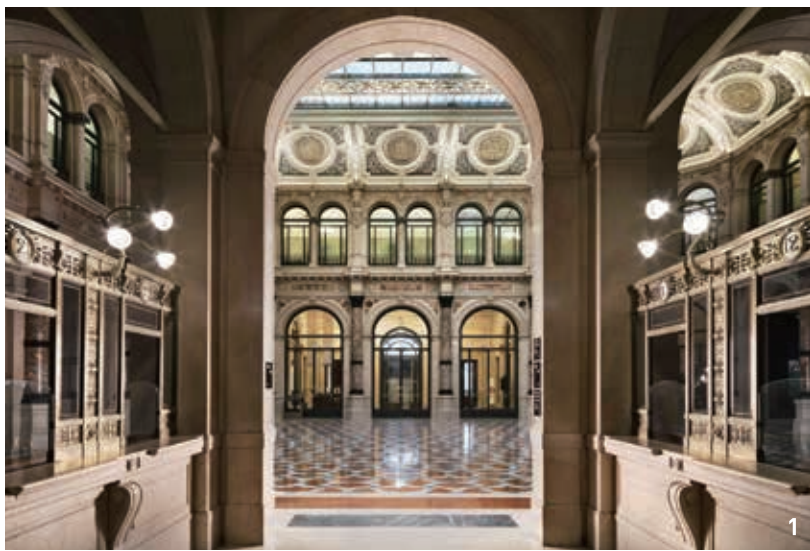
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공헌을 수행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저축은행이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점은 더욱 특별하다. 국내 기업이나 은행도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한다.

이탈리아 저축은행재단은 문화, 예술, 교육, 연구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사회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혁신적인 공익 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메세나 활동도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장기적인 사회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저축은행재단은 법률의 엄격한 규제와 정부 감독하에 투명하게 운영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메세나와 사회공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도 중요하다. 물론 한국과 이탈리아의 금융 시스템, 법적 환경,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달라 이탈리아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탈리아 저축은행재단의 핵심 가치와 운영 방식은 국내 기업이나 금융권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 2

카리플로재단이 운영하는 밀라노·나폴리의 이탈리아 미술관



1



2

문화투어

운영시기
2025. 5 ~ 기금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mecenat.or.kr

문의
02-784-0952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지원 캠페인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공연, 전시, 도서 등 문화예술을 선물하세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1:1 매칭, 최대 300만 원 지원

① 트랙. 함께하는 문화선물
공연, 전시 및 문화행사 선물

② 트랙. 손에 잡히는 문화선물
도서, 음반 선물

참여자격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기업(법인에 한함)

지원범위 ①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티켓
② 예술단체(인) 초청을 통한 문화집대 프로그램
진행 시 공연·출연료 일부

① 국내 작가의 문학·인문·예술도서(소설, 시, 에세이 등)
② 국내 아티스트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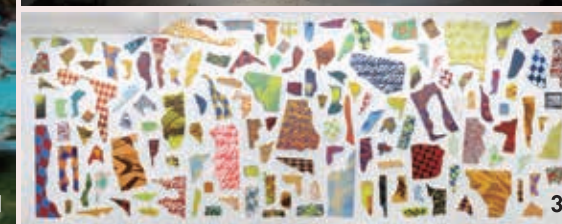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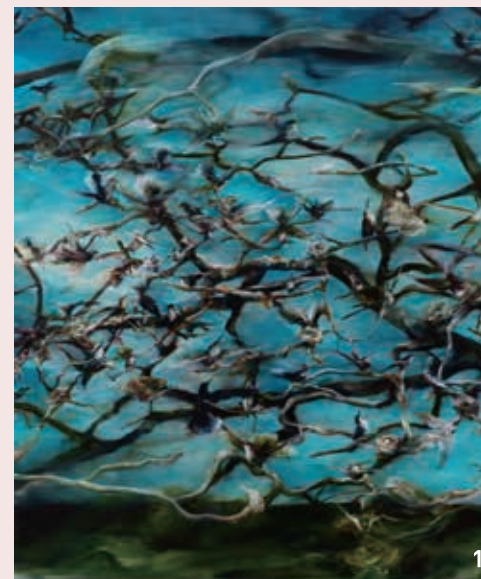
문화기업업무추진비란?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집대비) 제도는 기업이 고객 등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 등의 티켓이나 도서, 음반, 미술품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집대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을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선물은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벨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근당 예술지상 2025 올해의 작가 선정

종근당 - 아트스페이스 휴

글 김세연 한국메세나협회 A&B팀 선임



① 임화재, <Tree of Stuffed Hummingbirds>
oil on canvas, 227.3×181cm, 2024

② 조기섭, <음운>
장지에 은분, 호분, 분채,
180×290cm×2pcs(흑경 반영 60×290cm),
2024

③ 지알원, <Aftermath>
나무 위에 스프레이 페인트, 가변 크기, 2024

유망 신진 작가를 지원해 역량이 입증된 신예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종근당이 2025년 올해의 작가로 임화재, 조기섭, 지알원 작가를 선정했다. 4월 21일, 종근당홀딩스 본사에서 '종근당 예술지상 2025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회화적 언어로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화재 작가는 박제된 동물을 통해 인간의 소유욕과 재현의 딜레마를 회화적으로 탐구하고 유리막 너머로 이를 바라보는 방식에 주목한다. 조기섭 작가는 자연 안에서 느낀 기억과 감정을 은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겹겹이 쌓아가는 방식으로 화면에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지알원 작가는 거리 문화인 그래피티 방식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사용한다. 문화, 정치, 사회적 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현상을 작업의 소재로 다룬다.

조기섭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 선정을 계기로 창작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험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구축해온 예술적 방향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확

장해가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하남 종근당홀딩스 대표는 "세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대미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라며 "종근당은 앞으로도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와 한국 현대회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예술지상에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 원의 창작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일환으로 종근당과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가 결연을 맺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2명의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미술계 전문가들의 두 차례 비공개 심사로 세 명의 작가를 선정하며, 만 45세 이하의 신진 작가 중 회화 분야의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2023년 선정작가인 국동완, 박미라, 한지형 작가 3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전시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

새로운 국악의 매력 속으로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

글 안지수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사업팀 매니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하는 ‘The Gift’는 이름 그대로 예술을 선물처럼 나누는 문화예술 사회공헌사업이다. 일회성 후원을 넘어 2019년부터 다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아티스트가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연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엑스AUX, 날다NALDA와 함께하며 2만 6,000여 명의 관객을 만난 ‘The Gift’는 2025년부터 퓨전국악밴드 ‘차차웅’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범상치 않은 팀명 차차웅은 신라시대 어휘인 ‘왕(차)’과 ‘무당(웅)’이 합쳐진 단어로 무대에서 왕처럼 자유롭고, 무당처럼 신명나게 노는 밴드가 되겠다는

아티스트의 의지를 담고 있다. 차차웅의 음악은 민요를 기반으로 록, 재즈, 전 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수자인 지서현을 필두로 펼치는 피지컬 퍼포먼스는 차차웅의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관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지난 5월 18일, 차차웅은 ‘The Gift’를 통해 퓨전국악 뮤지컬 《낭만도깨비전》을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처음 선보였다. 객석이 가득 찼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첫 공연은 누구나 유년시절에 읽었을 전래동화 ‘혹부리영감’을 차차웅의 방식으로 비틀었다. 시간 배경을 현대로 옮겨, 혹을 떼어내고 싶었던 주인공이 도깨비들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려냈다.

또한 소고놀이, 상모돌리기, 부채춤 등 다양한 전통 퍼포먼스들을 극의 주요한 흐름 속에 배치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작품은 무대 연출에서도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는데,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영상과 출연진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하면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도깨비들이 실제로 살아 숨 쉬는 듯한 판타지 공간을 만들어냈다.

《낭만도깨비전》은 대중에게 국악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The Gift’의 방향성과 기존의 국악 문법을 탈피하려는 차차웅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그렇게 탄생한 이 작품이 국악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넘어, 관객으로 하여금 그 안에 숨겨진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① 퓨전국악밴드 차차웅
② 지난 5월 18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린 《낭만도깨비전》



저마다의 꿈을 연주하는 청소년

‘CJ 튜업음악교실’

글 조권주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사업팀 선임

지난 3월, 1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밴드 ‘CUBE’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이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되었다. CJ 튜업음악교실을 통해 탄생한 밴드 구성원들의 소속은 지역아동센터, 공립고등학교 등 각기 다르다. 이들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하나의 음악 안에서 어우러지기 위해 밴드명을 ‘CUBE’로 지었다.

튜업음악교실은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밴드 중심의 음악 교육이다. CJ문화재단이 발굴한 인디 뮤지션과 음악 장학생이 강사로 참여하며 자아실현과 사회성 향상, 진로탐색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에 발매된 싱글 앨범의 타이틀 곡 〈하얀캔버스〉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며 함께 그려갈 찬란한 미래를 노래한다. 강사로 참여한 뮤지션들이 청소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에 깊이 공감하며 기획·편곡을 함께했고, 학생들은 녹음과 제작 과정에서 음악적 성장을 경험하며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번 음악 프로젝트에서는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학생의 사연도 눈길을 끈다.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의 김기연 학생은 2016년 재중 동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 광시성 난닝에서 인천으로 이주한 배경이 있다. 지난 3년간 튜업음악교실에 참여하며 어릴 적 꿈이었던 축구선수 대신 ‘메탈리카’ 같은 헤비메탈 밴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음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 올해 실용음악과에 합격했다. 김기연 학생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동안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진로를 꿈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현 CJ문화재단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문화 소외 청소년과 함께하는 튜업음악교실은 201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학생들은 악기를 배우고 자신만의 목표를 찾으며 진로를 그려가고 있다. 튜업음악교실은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

나의 하얀 캔버스 함께 채워가봐요.
너와 내가 숨쉬는 순간을 그려요.
너와 나의 빛나는 순간을 그려요
너는 하늘 바탕을 나는 하얀 구름을

조각조각 채워지는 순간들
조각조각 마음에 새겨질 지금 이 순간을 그려요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 어른이 되어도 기억에 남도록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 어른이 되어도 기억해요 우리의 순간을
- 〈하얀캔버스〉 가사 중 -



① CJ아지트에서 진행된 녹음 현장
② 녹음실에서 일렉기타를 연주하는 김기연 학생



〈하얀캔버스〉MV

협회 뉴스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에 뜻 모은 기업들



인국문화예술위원회 NOROO POONGSAN 설원량문화재단 벽산엔지니어링 AMOREPACIFIC Dongsung CJ 문화재단 D Exchange

“음악, 특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제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 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후원자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제게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느낍니다.”

지난 5월 2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마친 선우예권은 리셉션에 모인 120여 명의 소중한 이들 앞에서 감격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소회를 전했다. 이날 공연과 리셉션에는 16년 만에 카네기홀 무대에 다시 오른 선우예권을 격려하기 위해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양귀애 설원량문화재단 이사장, 윤기수 디엑스체인지 회장 등이 자리했다.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에 뜻을 모은 각 기업의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이다.

한국메세나협회와 미국의 코리아 뮤직 파운데이션이 공동 기획한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는 매년 1명의 뛰어난 연주자를 미국 클래식 시장에 소개해 세계 속 K-클래식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첼리스트 최하영이 첫 번째 주자로 무대에 오른 데 이어 올해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그 두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노루홀딩스, 풍산그룹, 설원량문화재단, 벽산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재단, 동성케미컬, CJ문화재단, 디엑스체인 지 등 8개 기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포럼이 공동 후원으로 참여해 K-클래식 인재의 도약을 위한 항해에 뜻을 함께 올렸다.

카네기홀 외벽에 걸린 대형 공연 포스터에는 붉은색의 ‘Sold Out’ 스티커가 붙었다. 599석 규모의 젠켈홀이 전석 매진되었고,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포스터 앞을 지나던 이들은 자연스레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서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감성의 깊이, 명료한 구조, 세련된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연주는 약 120분 동안 이어졌고, 무대 위에서 펼쳐진 섬세하고도 힘 있는 해석은 관객의 숨결을 사로잡았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관객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한목소리로 앙코르를 외쳤다.

앱 셉쿠타(카네기홀 예술기획 디렉터), 톰 갤런트(제너럴 아츠 투어링 디렉터) 등을 포함한 음악평론가, 공연장기획사·음반사 관계자들이 공연을 지켜봤다. 객석에 있던 피아니스트 앤 마리 맥더모트는 “이번 선우예권의 카네기홀 연주는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공연이었다.”라고 극찬했다. 재능과 성실함을 겸비한 탁월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이날 공연을 통해 미국 클래식 음악계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훌륭한 연주자와 뜻을 모아 그를 지지한 기업들 덕분에 이날의 공연이 가능했다.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는 한국 클래식 인재들을 믿고 후원하는 기업의 따뜻한 동행 속에서 또 다른 항해를 준비 중이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힘찬 항로를 그려나갈 것이다.

협회 뉴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본선 진출자 3인 지원

한국메세나협회가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본선 진출자 3인(김선아, 김준호, 문성우)에게 후원 증서와 지원금을 전달했다.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사업’은 한국메세나협회가 K-아트 음악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세계적 권위의 바이올린·피아노 콩쿠르 본선에 진출한 국내 연주자를 지원한다. 연간 5명 내외로 선정해 콩쿠르 출전 경비를 전달하며, 최종 3위 이내 입상자에게는 기업의 후속 지원도 연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2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 진출자 4인을 첫 지원, 1위에 오른 피아니스트 임윤찬에게 KT&G장학재단의 후원까지 연결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2022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2024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바이올린 부문)의 본선 진출자들을 추가 지원했다.



피아니스트 김준호는 “음악가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번 콩쿠르 출전과 한국메세나협회의 지원을 계기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실력을 갈고닦으며 늘 정진하되,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하게 다가가 는 연주자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달 한국메세나협회장은 “협회의 이번 지원과 관심이 아티스트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 3기 선정

한국메세나협회와 (주)면사랑이 올해의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 수상자로 클라리네티스트 서예빈, 호른리스트 강민성, 비올리스트 유서연 등 3인을 선정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은 최근 5년 이내의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관악·현악 부문 개인 수상자 중 3인을 선정해 1인당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예술적 역량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연주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콩쿠르 주최 측에서 발표한 순위권 수상자 외에도 심사위원상, 평론가상, 청중상 등 특별상 수상자까지 대상으로 한다.

그간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되었던 6인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임을 감안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목관·금관악기에서도 선정자가 배출되어 눈길을 끈다.

이충관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은 “콩쿠르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체류비 등 수반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에 따른 연주자들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닦으며 국제 무대를 준비하는 연주자들에게 이번 지원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7월 19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2025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 수상자 연주회》가 열린다.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 첼리스트 정우찬 등 지난 12기 선정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춘다.



협회 뉴스

《메세나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의 압도적 무대

《2025 메세나 콘서트》가 5월 10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렸다. 450여 명의 기업 임직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무대에 올라 과감하고 압도적인 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지윤은 450년 전통 베를린 슈타츠헤펠레의 동양인 여성 최초 종신 악장으로 활약 중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이지윤이 독일에서 지내면서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1부는 낭만시대의 보석과도 같은 소품인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로망스〉로 문을 열었다. 잔잔하고 서정적인 선율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에서 극대화되어 ‘봄’이라는 부제대로 밝고 따스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2부는 브람스의 강렬한 〈F-A-E 바이올린 소나타〉중 스케르초로 시작해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로 이어졌다. 고난도의 테크닉과 연주자 간의 긴밀한 호흡이 요구되는 작품에서 이지윤의 깊이와 뛰어난 연주 실력은 유감



없이 드러났고, 관중은 큰 환호를 보냈다.

이지윤과 함께 앙상블을 이룬 피아니스트 보리스 쿠즈네초프Boris Kusnezow는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협주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권위있는 콩쿠르에 초청받으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수많은 연주자와 호흡을 맞춘 만큼 이날 공연 역시 최고의 파트너로서 이지윤과 조화를 이루었다.

A&B포럼,
‘Art&Technology 시대, 예술계의 변화는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각종 산업뿐 아니라 창조성의 영역인 예술 분야까지 넘나들며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메세나협회는 2025년 제1차 A&B포럼의 주제를 ‘Art&Technology 시대, 예술계의 변화는 어디까지?’로 설정했다. 예술·기술·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해 지난 4월 23일, 기업의 메세나 담당자 30여 명과 경기 용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함께했다.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보존·연구하는 전문 기관에서 진행된 만큼, 포럼 첫 순서로 2025년 기획전 《전지적 백남준 시점》을 관람했다. 이어 동시대 젊은 미디어아티스트 7팀이 참여한 전시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4.0》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술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했다.

포럼은 김주섭 서강대학교 Art&Technology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한층 깊이를 더했다. 김주섭 교수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이 예술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파급력을 설명하며 “현대의 예술은 기술을 매개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며, 이는 관람자가 감상에 그치지 않고 작



품의 메시지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자에게 높은 제작 효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더욱 능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예술이 기업에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기술과 결합한 예술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협회 뉴스

국악·문학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2025년 한국메세나협회의 신규사업은 상대적으로 기업 후원이 부족한 국악·문학 장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국악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국악 관객 개발 공연 지원 프로젝트’와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유망 작가를 지원하는 ‘들리는 문학 프로젝트’의 후원 기업을 7월까지 모집한다.



‘국악 관객 개발 공연 지원 프로젝트’

국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예술단체(인)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작품들은 판소리 다섯 마당의 주요 대목을 웹툰으로 구성한 《판툰》, 모파상의 단편소설을 1인 판소리극으로 풀어낸 《판소리 쫓스토리》 등 현대적 감각과 대중성을 겸비한 창작물이다. 기업은 예술단체(인) 4곳 중 1곳을 선택해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며, 기업 사내 공간 또는 CSR 지원처 등 원하는 장소에서 2회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 **사업문의** 02-761-4237 | cmkim@mecenat.or.kr

‘들리는 문학 프로젝트’

국내의 권위있는 문학상 수상자에게 오디오북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한국 단편소설의 새 지평을 연 김유정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김유정문학상’의 수상작 및 후보작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한다. 선정 작가에게는 오디오북 저작권료 및 녹음비를 지급하며,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된 오디오북 음원은 국내 주요 오디오북 플랫폼에 배포될 예정이다.

• **사업문의** 02-761-0858 | jhs@mecenat.ot.kr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1-2023년	전희경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안상훈	벽산엔지니어링
	정정주	CJ문화재단
2022-2024년	김미영	바텍
	신건우	한미약품
	차영석	현대백화점
2023-2025년	김남두	TYM
	최혜숙	신세계디에프
	양정화	이건
2024-2026년	조종성	일진문화재단
	윤향로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이병호	벽산엔지니어링
	오제성	CJ문화재단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은 타 장르보다 시각예술 분야의 메세나 활동이 미비한 실정을 고려해 한국메세나협회가 20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력해 차세대 유망 작가를 선정, 기업 후원을 연계한다. 기업은 후원 작가에게 3년간 창작금을 지원하며 작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개의 기업이 13명의 작가와 인연을 맺고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창작금을 비롯한 작품 구매, 도록 발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후원이 진행된 다. 미술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 작가 지원을 위해 2025년에도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내용	(기본) 지원사항 : 매년 최소 창작금 500만 원씩 3년간 지원 (선택) 지원사항 : 작가 작품 구매
지원기업 Benefit	후원식 개최 기부금영수증 발행 2025년도 기획 전시에 후원기업명 표기 언론홍보 협력
신청기간	6월~8월
사업문의	02-786-9657 sykim@mecenat.or.kr

회원사 뉴스

크라운해태제과그룹, 『세계로 가는 K-조각의 미래 2』 발간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이 『세계로 가는 K-조각의 미래 2』를 발간했다.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이 2023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조각 전문도서 'K-SCULPTURE' 시리즈의 세 번째 도서로, 이번에는 국·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다. 『세계로 가는 K-조각의 미래 2』는 박선기, 신미경, 이수경, 최우람 등 국내 대표 조각가 열두 명의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탐구했다. 조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간지에 연재한 열세 편의 칼럼을 모아 각 조각가의 대표작들을 소개하고 작가 고유의 조형 언어를 풀어냈다. 마지막 장은 한국 조각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우리만의 정체성을 강화할 비전을 담았다.

시중 서점에서 판매 중인 이 책의 국문판은 전국의 조각 전공 대학생 2,000여 명에게 무료 제공되었다. 더불어 영문판은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10대 주요 갤러리와 2025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키아프Kiaf 등 글로벌 아트페어 현장에 배포된다. 특히 이번 도서는 글과 이미지 중심인 기존 도서와 달리 성우의 목소리로 듣고, 조각가의 현장 인터뷰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QR코드를



배치해 눈길을 끈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K-조각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넓히고, 국제 무대에서 당연히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 20주기 추모 음악회 성료

지난 5월 23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故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전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20주기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위해 무한한 애정과 헌신을 펼친故 박성용 명예회장을 기리고 추憶하며, 그가 품었던 문화예술 지원의 아름다운 뜻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이날 공연에는 금호영재콘서트의 첫해부터 함께한 1세대 음악영재이자 고인이 친손녀처럼 아꼈던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무대에 올랐다. 손열음은 1998년 박 명예회장을 처음 만난 순간과 2005년 마지막으로 만난 공연에서 연주한 작품, 그리고 현재 고인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곡을 선곡하며 슈만의 <아베크 변주곡>, 라벨의 <라 발스> 등을 연주했다. 그는 “박성용 명예회장님을 알고 지낸 시간보다 떠나신 다음에 시간이 더 많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남기신 귀중한 것들을 함께 추억해 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박성용 회장님을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故 박성용 명예회장은 한국메세나협회 제5대 회장직을 맡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에 많은 열정을 쏟았다. ‘문화는 어릴 때부터 알게 해야 자라서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신념으로 기업과 정부를 적극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전개했다.

회원사 뉴스

서울시립교향악단, 뉴욕 카네기홀 정식 초청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올해 10월 27일, 뉴욕 카네기홀 기획공연 《International Festival of Orchestras II》시리즈의 일환으로 스티븐 오티토리움에서 연주한다. 2024년 취임한 압 판 츠베덴 음악감독과의 첫 해외 순회공연이기도 한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이 위촉한 작품이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음악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정재일 작곡가의 작품 <인페르노>의 미국 초연으로 오프닝을 연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고, 2부에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 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예정이다.

2007년 정명훈 지휘로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유엔의 날 기념공연’ 이후 18년 만에 뉴욕을 재방문하는 서울시향은 전세계 음악가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카네기홀로부터 정식 연주 초청을 받은 최초의 한국 오케스트라가 된다. 2025/26 카네기홀 기획공연 《International Festival of Orchestras II》시리즈에는 서울시향 외에 빈 필하모닉(안드리스 넬슨스 지휘), 부다페스트 페스



티벌 오케스트라(이반 피셔 지휘) 등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서울시향은 카네기홀 공연 후, 미국 중남부 지역의 주요 문화 허브인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의 맥나이트 공연 예술센터에서 순회 연주를 이어가며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피아니스트 박재홍과의 협연을 포함한 관현악과 실내악 등 총 4회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스페이스K 서울, 소피 폰 헬러만 개인전 《축제》 개최

코오롱의 문화예술 나눔 공간 스페이스K 서울이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피 폰 헬러만Sophie von Hellermann의 개인전 《축제》를 개최한다. 신화와 역사, 문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영감 받은 작가의 작품은 파스텔 톤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피 폰 헬러만은 한국의 단오가 서구의 축제와 비슷하면서도 제의의 성격과 맞닿는 지점에 주목했다. 의식과 놀이로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공동체와 유대감을 다졌던 한국의 전통 축제에 관심을 가진 작가는 농경사회를 지나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지금도 전통 축제가 유의미한 영감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한국 문학으로부터 영감 받은 작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작가는 봄의 축제처럼 오고 가는 '사랑'의 감정에 집중했다. 꽃과 두 인물을 묘사한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참조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엇갈린 시선은 상대를 떠나보내는 사람의 감정선을 나타낸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다룬 고전 문학 『춘향전』은 <춘향>과 <몽룡> 각각의 작품으로 재탄



생했다. 소피 폰 헬러만은 전시장에 거대한 벽화를 그렸다. 이번 벽화는 작가가 선보여온 벽화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비, 눈, 햇빛,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대형 벽화로 그려 인물과 자연이 교감하는 축제의 풍경을 표현했다. 전시 종료 후 다시 지워질 벽화를 통해 인간의 탄생과 죽음 역시 때가 되면 열리는 축제 중 하나라는 점 또한 떠올리게 된다. 전시는 7월 6일까지.

회원사 뉴스

양정화 작가를 바라보는 이건EAGON의 시선

양정화 작가가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으로 연을 맺은 기업 이건EAGON의 후원으로 홍대 앞 이건하우스에서 5월 31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 제목 《Study Of Heart》는 2016년부터 목탄과 콩테 등으로 ‘심장’을 그리는 데 천착한 작가의 작업 방향을 반영한다.

1990년부터 매년 《이건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 공연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이건은 2023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미술 지원에도 관심을 넓히게 되었다. 작가의 든든한 동반자를 자처한 이건은 단기간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하며 작가와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양정화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약 한 시간 동안 창작 과정과 작품, 재료, 근황, 작업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양 작가는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작업의 커다란 축이라고 설명했다. 검정색의 다양한 층위를 연구하던 작



작가 인터뷰 영상

가는 곧 컬러감이 드러나는 작업을 보여줄 것이라며 듣는 사람만큼이나 기대에 찬 목소리로 다음 작업을 예고했다.

양 작가는 “현실적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든든히 지원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창작 활동에 몰두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전했다.

작가에 대한 기업의 애정이 짙게 느껴지는 인터뷰 영상들은 ‘이건음악회’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제약, 《메리 오케스트라 한강공원 도심 음악회》 후원

2020년부터 시작된 동아제약과 사단법인 메리의 결연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 4월 11일, 반포대교 남단 세빛섬에서 열린 《메리 오케스트라 한강공원 도심 음악회》에 동아제약이 후원기업으로 함께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메리 오케스트라와 일본 메이지대학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진행되었다. 두 팀은 지난해 일본 도쿄 중심부인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야외극장에서 협연한 이후 올해 서울에서 재회해 아름다운 선율을 전했다. 프로그램은 유명 애니메이션 및 영화 OST 등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메들리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아제약은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매년 정기 연주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동아제약 - 한국메세나협회 - 사단법인 메리의 3자 후원 협약을 맺었으며, 오케스트라 비용은 물론 피로회복제 박카스와 젤리 등 물품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반복되는 일상 속 이번 음악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힐링과 즐거움을 얻으셨기를 바란다.”라며 “동아제약은 메리와 함께 지속적인 정기 연주회로 문화예술 공연이 필요한 곳곳에 찾아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회원사 뉴스

뮤지엄한미, 《경계의 에포케》展 개최

뮤지엄한미가 양승원의 개인전 《경계의 에포케》를 7월 20일까지 삼청별관에서 개최한다. 양승원은 젊은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MH Talent Portfolio’를 통해 선정된 작가 6인 중 한 명이다.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MH Talent Portfolio’는 단순히 역량 있는 작가를 선별하고 이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작가가 구상 중인 작업의 실현 가능성을 미술관의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 선정 작가들의 개별적인 방향성과 시기에 맞춰 개인전, 2인전, 해의 리뷰, 사진집 출간 등을 지원한다.

양승원 작가는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해 합성, 렌더링, 입체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의 변형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사진이라는 매체가 지닌 고정성을 견어내고 유동성과 가변성에 주목했다.

전시 제목 《경계의 에포케》는 판단을 보류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현상학적 개념 ‘에포케epoché’에서 출발한다. 양승원 작가는 ‘경계’를 고정



된 선이 아닌 실재와 비실재, 변화 이전과 이후를 넘나드는 흐름의 상태로 정의하며 이미지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기를 제안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아티스트 토크와 관람객 참여 워크숍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는 뮤지엄한미 홈페이지(<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독의약박물관, 청주시립미술관 협력 전시 개최

한독의약박물관이 청주시립미술관과 협력해 전시 《여백: 그리고, 남기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28일까지 충북 음성과 서울 마곡 두 곳에 위치한 한독의약박물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 선정된 4인의 작가(서연진, 오승언, 이은우, 유수진) 중 서연진·오승언 작가가 전시 공간을 채웠다.

《여백: 그리고, 남기기》는 백 마디 말보다 침묵이 어려운 현시대에 의미가 남다른 ‘여백’을 각자의 조형언어로 재해석한 두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연진 작가는 작품에 가상과 현실 공간의 특징을 혼재해 점차 유사해지는 온·오프라인 세계를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오승언 작가는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에서 누구의 마음속이나 존재하는 ‘마음의 여백’을 찾는다. 이를 화면 속 여백으로 그리며, 언어나 기술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각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전시에 참여한 서연진 작가는 “이번 작업은 기술과 환경이 교차하는 미래의 생태계를 상상한 여러 시도 중 하나로, 보다 다양한 관객의 시선으로 작업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승언 작가는 “바쁜



일상에서 생기는 밝지만은 않은 생각과 고민도 여유가 있어야 돌볼 수 있다. 전시를 통해 미처 돌보지 못했던 부분을 사유하는 잠깐의 여유를 가져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독의약박물관은 한독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1964년 설립된 기업박물관이자 전문박물관으로, 한독제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 뉴스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하는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한성자동차 드림그림’은 2012년부터 14년째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미술영재 장학사업이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창작 경험 및 전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드림그림은 ‘Drawing Heritage, Growing as Artists’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전통 미술의 독창성을 탐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아티스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루씨쑤손벡나 작가와 함께 ‘민화’ 수업을 진행했다. 전통 민화의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나만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5월에 진행된 헤강 작가의 ‘디지털 문자도’ 수업에서는 아이패드를 활용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글자와 상징적 이미지를 전통 한국화 기법으로 표현했다.

단청 디자인, 수묵화, 건축유적 펜드로잉 등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다양한 수



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학생의 결과물 중 일부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그룹전 《2025 On Boarding》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올해는 초대작가 이상원과 드림그림 멘토로 구성된 4인의 신진작가가 그룹을 이뤄 세미나를 이어가며 각자의 작업 세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 금호미술관에서 개최된다.

한화손해보험 ‘우먼 힐링 LIFE’, “Well Together!”

5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화손해보험 ‘우먼 힐링 LIFE: 토크&아트’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암 경험자와 보호자를 위한 기획으로, 암 치료 이후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불안과 거리감에 주목해 예술과 대화를 매개로 한 ‘삶의 회복’을 모색한다.

이번 주제는 ‘Me: 나다움으로 빛나는 셀프 이미지 메이킹’으로, 올해 ‘우먼 힐링 LIFE’의 키워드인 ‘Me’, ‘Us’, ‘Growth’ 중 첫 번째 시간이었다. 강연과 아트 클래스로 구성되어 흔들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나다움을 되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은 모더레이터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유쾌하고 진정성 있는 진행과 함께 김주미 소울뷰티디자인 대표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김 대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암 경험자들이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뷰티 테크닉과 셀프 이미지 회복의 방향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천연 컬러 립밤과 모루인형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가 이어졌다.



올해는 총 2회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2회차는 암 치유 과정에서 소원해진 관계(Us)를 되돌아보고, 3회차는 여성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Growth)를 주제로 한 심화 과정이 이어질 계획이다. ▼▼

회원사 소개 (가나다순)

회장사	크라운해태제과그룹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삼양홀딩스	세아제강	파라다이스문화재단	
	노루홀딩스	서울향료	유니드	풍산그룹	
	삼성문화재단(리움미술관)	설원량문화재단	종근당	한미약품	
이사사	금호문화재단	이건홀딩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K SUPEX추구협의회 Social Value위원회	
	남이섬	일신문화재단	한성자동차		
	(주)두산	일신방직	CJ제일제당		
	사라	한국경제인협회	LG연암문화재단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롯데문화재단	스파크인터내쇼날	카카오뱅크	호텔롯데 면세점
	강원랜드	롯데백화점	신라교역	컨슈머타임스	호텔신라
	경남스틸	마케팅큐레이터 그룹	(주)신세계	케이옥션	힐라코리아
	공간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세계디에프	코리아 투모로우	휴맥스
	금융투자협회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신성씨에스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BAT로스만스
	금문철강	(주)연사랑	신한금융투자	코스모스악기	BMW코리아
	금호건설	모나미	신한은행	코오롱그룹	BNK경남은행
	금호고속	문화유산국민신탁	신한카드	코카콜라음료	BNK부산은행
	금호고속 유스퀘어	미디어월	아라마크	크레디아프로젝트	디동일
	금호미쓰이화학	바텍	아시아나HDT	클라우드나인마케팅	DL이앤씨
	금호타이어	백산엔지니어링	아시아나에어포트	태영건설	GA KOREA smart city & resort
	나라삼양감속기	보령제약	아시아나항공	템퍼코리아유한회사	GS칼텍스 예울마루
	나우피플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아이피케이	퍼시스	GS칼텍스주식회사
	남이섬교육문화그룹	삼성SDI	에네스지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	HK
	넷마블문화재단	삼성SDS	에스원	한국FPSB	HSD엔진
	노루오토코팅	삼성물산	영무토건	한국공항공사	IBK기업은행
	노루페인트	삼성생명	오리콤	한국광고주협회	KBS교향악단
	뉴스킨 코리아	삼성서울병원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국무역협회	KB국민은행
	다진	삼성엔지니어링	오성정보통신	한국서부발전	KEB하나은행
	대성산업가스	삼성전자	올림푸스한국	한국전력공사	KH필룩스
	대신증권	삼성중공업	우진	한국토요타자동차	KT
	대우건설	삼성증권	우진건설	한독	KT is
	대주엔터프라이즈	삼성카드	원마운트	한맥도시개발	KT&G
	대창스틸	삼성화재해상보험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한미글로벌	LG생활건강
	대한상공회의소	삼양인터내셔널	원포시스	한미회계법인	LG전자
	대한항공	삼익문화재단	유안타증권	한빛문화재단	LG화학
	주식회사 더성도	삼일회계법인	유중아트센터	한세실업	OCI
	돌살나이	삼화에프앤에프	이건산업	한진	POSCO
	동서식품	서울시립교향악단	인터파크 큐브릿지	한화	SK건설
	동성케미컬	서울옥션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한화생명	SK네트웍스
	동아제약	선명회계법인	일진문화재단	한화손해보험	SK증권
	동아출판	세원특수금속	재단법인 송강재단	햇빛담요	SK텔레콤
	동일FnG	세일ENS	제우인베스트먼트	현대백화점	SK해운
	두산연강재단	세화예술문화재단	제일기획	현대자동차	SM삼환기업
	두산에너지빌리티	소만사	조선호텔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TCC스틸
	디엑스체인지	송원문화재단	종이문화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로알&컴퍼니	수해패션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현대큐넷	
	롯데렌터카	스테들러코리아	지앤하어링코리아	호텔롯데	

회비 지원 (2024.12.04~2025.05.20)

감사드립니다

CROWN 후원





기억력 감퇴! 오늘도 현재진행형?

오늘부터 Brain + ing!

박해수

기억력 감퇴 개선엔 브레이닝 캡슐

- ✓ 은행업건조엑스 GK501™ + 인삼추출물 G115™
- ✓ 임상으로 입증된 기억력 감퇴개선 의약품
- ✓ 스위스 완제 수입 의약품



광고심의필 : 2025-1760-004716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K.A. Wesnes, T. Ward, A. McDirmy, & D. Pettrini (2001). Psychopharmacology (Berl.). The memory enhancing effects of a Ginkgo biloba/Panax ginseng combination in healthy middle-aged volunteers. 5-20